

## 체험학습과 환경소모임을 위한 생태미술 프로그램

### 차 례

머리글 (김정희) ..... 1

#### 봄

1. 떨어진 꽃이 다시 피어났어요.
2. 겨울눈
3. 꽃잎놀이
4. 흙느끼기
5. 비가 그림을 그려요
6. 자연과 친해지기 - 아기풀
7. 봄의 빛깔
8. 나의 나무찾기와 수피
9. 기차길
10. 나무-나그네의 여행

#### 여름

1. 벌레먹은 나뭇잎
2. 돌이 보석이 되었어요
3. 바람아 놀자
4. 나무의 얼굴
5. 방아깨비
6. 잠자리
7. 장승
8. 재미난 얼굴
9. 뜨거운 태양의 열기
10. 동선으로 만든 잎

#### 가을

1. 미국자리공
2. 풀가발만들기
3. 나의 씨앗에서 무엇이 나올까
4. 거미줄
5. 낙엽연

6. 가을담기
7. 담쟁이덩굴
8. 자연을 담은 그릇
9. 덩굴로 리스만들기

#### 겨울

1. 겨울꽃
2. 겨울나무
3. 나무가 내게 말을 해요
4. 눈썰매 타기
5. 누워있는 나무
6. 눈조각
7. 눈 가리고 불만들기
8. 피어오르는 연기

[서문]

## 생명 교육으로서의 자연 체험 미술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수 백 만년 동안 인간은 자연을 경외하였고 자신을 품고 있는 대자연의 한 작은 자연으로 이해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한 2백 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인간은 자연을 인간의 무한하고 방종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멋대로 개조해서 쓸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착각을 갖고 살았다. 이 기간은 전체 인류 역사로 보면, 그 1/10000 쯤 되는 극히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 인간은 지속가능성이 인류 공동의 화두가 될만큼,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기반인 자연을 철저히 파괴하고 착취하였다.

한편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을 가르치면서 흙, 물, 바람, 돌과 같은 자연은 무생물로 가르치고 있다. 무생물이라 함은 생명이 없음을 의미하고 자연이 이같이 생명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순간 자연을 무한히 파괴하고 착취하는 것을 발전으로 착각하는 근대적 인간형은 창조된다. 이같이 학교는 전 국민의 생명 감수성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몰살시키는 고도의 효율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이 받은 폭력과 상처가 25 퍼센트에 이르는 아토피 발생율, 15%에 이르는 불임율, 예측 불허의 자연 재해라는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날아오면서 지속가능성이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인류가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삼고자 함이 진정한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은 생명이 있음을 환기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그것의 교육적 반영은 곧 생명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 교육은 모든 것이 살아 있음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을 폐기한 조짐을 발견할 수 없는, 생명주의자들은 학교 밖에서라도 생명 교육의 영토를 구축해갈 수 밖에 없다. 이때 생명 교육은 근대 사회가 인간이 자연을 무한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릇된 자연관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곧 굳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자연을 생명 자체로 체험하고 감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더할 나위 없는, 어린이를 위한 자연 교육 개론서라 할만하다. 자연에 흠뻑 취한 두 선생님이 아이들과의 자연 놀이와 결합된 미술활동을 수년 간 해오면서 쌓여진 자연 미술 교육의 연륜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느껴진다. 이 책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어떤 자연 미술 놀이를 할 수 있는가의 소재와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이 책의 의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 책은 아이들과 자연 미술 체험 활동은 수 년째 지속한, 그 경험의 바탕 위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체험 미술 교육의 통합적인 교육 효과를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다.

### 1. 건강한 심신을 만드는 자연 미술 놀이

아이들은 미성년으로 성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발달 과제이다. 따라서 어린이 생명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은 옛 어른들의 교육적 상식인 ‘잘 먹고 잘 노는’ 데 있다. 자연체험 미술 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는 ‘잘 놀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무엇이 ‘잘 노는’ 것인가? 성장기 아이들에게 그것을 몸으로 노는 것이어야 한다. 자연 체험 미술은 체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교를 가르치는 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기존의 주류 아동 미술과는 달리 아이들을 산으로 데리고 나가며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시냇물에 발을 담그게 하고 눈을 멍치게 하며, 톱질을 하게 하고 낙엽 속에 뒹굴게 하고 보고 느낀 것을 입으로 말하게 하고 손을 움직여 만들게 한다. 몸을 왕성하게 움직이게 한다. 여기에 실린 거의 대부분

분의 미술 활동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의 육감을 총 동원하는 놀이를 수반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유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자연체험 미술 활동은 표현 이전에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체험활동으로의 풍부한 자연 놀이와 결합되어 있고 이 자연 놀이는 아이들이 육감을 모두 작동시키게 되는 왕성한 몸 놀임을 요구하고 있다.

책에 소개된 놀이들 중, 눈에 띄는 놀이만 열거를 해봐도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풍부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진다; 겨울눈 찾기 놀이, 눈썰매 타기, 실크 천으로 바람과 놀기, 꽃잎 놀이, 꽃/바람 느끼기, 꽃/바람으로 상상하기, 꽃 목걸이 팔찌 만들기, 스프레이를 이용해 거미줄 찾기, 거미줄 만들기, 낙엽놀이, 가을 담기, 날씨를 여신으로 말하기, 산을 몸으로 표현하기, 줍으로 분장 놀이, 나무 되보기, 나무에게 편지 쓰기, 누워 있는 나무 되보기, 눈 조각 작품 만들기, 풀씨 관찰하기, 소품 만들기 (나무 꽃 목걸이, 풀가발 만들기, 장승 만들기), 별꽃 찾기, 꽃 이름 유래 듣기, 눈가리고 불 만들기, 찰흙으로 화전과 잎전 만들기, 씨앗에서 싹 나오기 상상해보기, 찰흙 관찰, 마술 빗자루 만들기, 야채로 곤충 만들기, 장승 표정 흉내내기, 흙 느끼기, 흙으로 그림 그리기, 돋보기로 벌레 먹은 나뭇잎 만들어 보기, 빗물에 배 띄우기, 씨앗에 대한 생각 나누기, 자기 나무 찾고 느끼기, 눈감고 동네 탐사하기, 해와 놀기, 새끼줄 꼬기, 연기 놀이, 걸어서 여행하기

한편 인간은 심신이 통합된 존재다. 특히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유일하게 자신의 말, 행동, 생각을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심신의 균형적인 성장은 인간 교육의 공통 목표이고 이 면에서 심(心)은 교육이 도외시킬 수 없는 주제이다. 마음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보통 인성 교육으로 불리면서, 이마저도 근대 학교 체제에서는 도덕 교과라는 분절된 교과목으로 분리해내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마음 교육이 도덕 교과를 통

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이란 애초에 우리의 언행과 생각의 통합체이므로 마음 교육이란 어떤 분절적인 교육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마음 교육이야말로 어린이가 접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시시각각 잘 혹은 왜곡되게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현상일 것이다.

생명 교육은 온갖 오감적 자극으로 인해 출렁이며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불교 용어로는 식(識)-근본 마음을 체험하고 자각하는 것을 마음 교육의 중심으로 본다. 근본 마음은 생태주의자들은 영성(spirituality), 동양의 맥락에서는 마음, 성품, 자성(自性), 철학에서는 양심, 성찰력 등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반성(反省)과 상상력, 창조가 자리하는 곳은 바로 출렁이는 변잡한 마음이 아닌 이 근본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교육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명상은 어른들을 위한 마음 교육 방법인데,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한 마음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책의 여러 자연 놀이들은 자연 놀이가 아이들의 몸 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무럭 무럭 자라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지님을 보여주고 있다. “상상해서 하니까 마음이 행복했어요”, “편안했어요. 여름에 숲에 누워 있는 느낌처럼”,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편안해지면서 불과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제 손이 타는 것 같았어요.”(겨울에 나무 태우는 걸 보고 눈 감고 찰흙으로 불 만들기 놀이를 하고 난 아이들의 말)라는 말에는 변잡한 마음을 떠난 청정한 마음에서 오는 집중력이 주는 마음 체험이 녹아 있다. 또 자연을 피서철에 폭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반경 속에서 일상적으로 체험할 때 그 자체가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효과가 있음을 교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술은 대상을 잘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림이 자리공 열매를 비슷하게 그렸는지, 단순화하여 그렸는지, 전혀 닮지 않게 그렸는지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떤 대상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에 담긴 생명의 신비를 도장을 찍듯 마음에 아로 새겨 놓으며, 아름

다운 심성을 평생 잃지 않을 것이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중독을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일중독, 스포츠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그리고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 중독, 이런 중독의 시대에 깨어 있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연 속에서 노는 것이라고 이 책의 자연놀이들은 말하고 있다.

## 2. 놀이와 표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통합적인 배움의 효과

과목간의 내적인 연결을 찾아볼 수도 없고 배움의 시간은 내적 연관이 없는 이른 바 시간표로 분절화되어 있는 근대 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 교육은 교육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교육의 통합성은 과목간 내적인 연계성과 과목마다의 내적인 통합성을 의미한다. 과목의 내적인 통합성이란 국어 교육이 국어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 시간에도 관찰 일지 기록, 토론 등의 과학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 소개된 자연 체험 미술 활동은 인문적·자연과학적 관찰, 말하기, 사회성과 같은 여러 교육적 활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통합적인 교육적 활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미술 활동이 일단 관찰하고 이와 관련된 놀이 활동을 한 후, 체험한 것을 표현하거나 만드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찰은 미술활동의 시작을 이루고 있다. 아이들은 돋보기를 이용해 관찰하기도 하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새가 남긴 씨앗을 나무 밑에서 주워 관찰하기도 한다. 진흙에 묻은 수피를 관화로 찍는 놀이를 통해 관찰이 완료되기도 하며, 겨울 눈에 대한 관찰은 한 계절을 넘겨 봄이 되 완료되기도 한다.

“어떤 것이 나와서 벽을 녹여 파고든 것 같아요“(담쟁이 넝쿨에 대한 표현).

“**(비는)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요, 물웅덩이를 만들어요,**“

“**봄의 색은 그냥 초록색, 분홍색, 노랑색인줄 알았는데요. 분홍색도 여러 가지고요. 초록색도 여러 가지라서 색이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종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종류마다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봄의 색이 화사하고요. 초록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비꽃이 보라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얀색도 있었어요. 꽃의 색이 내가 아는 것보다 많았어요.**”

“겨울 눈이 입고 있는 옷이 이렇게 여러 겹인지 몰랐어요. 겨울 눈이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겨울 눈의 종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비가 나무에 반짝 반짝 하는 보석들을 만들어요.**”

“**나무 잎사귀를 바람이 흔들어요. 바람은 다른 물건을 움직여서 모습을 보여 줘요.**”

“**(바람은) 인간처럼 생각해요.**”

“**(바람은) 달팽이처럼 생겼어요. 달팽이 껍질처럼 동그랗고 개똥처럼 생겼어요.**”

“**햇볕이 바람을 막고 있어요.**”

위의 표현은 아이들의 관찰 내용들이다. 관찰한 내용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데서 아이들의 상상력이 길러지며 아이들 누구나 시인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아이들은 매우 풍성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의 관찰 결과는 거미는 거미줄을 대각선으로 먼저 만든다는 것처럼 자연과학적인 발견도 있고 “해가 바람을 막고 있어요”와 같은 감성의 발견일 수도 있다. 자연 관찰은 과학자가 될 아이와 시인이 될 아이, 그 어느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같은 관찰에 대한 느낌을 서로 나누는 데서 표현력과 토론, 사회성 교육과 같은 인문적 교육이 동시에 일어난다.



### 3.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연을 체험하는 미술 교육은 단순한 미술 교육이 아니다. 거기에는 미술 교육이라고 못 박기에는 너무나도 풍성한 놀이의 체험과 마음 교육, 국어 교육, 사회성 교육, 자연 관찰과 상상력 기르기와 같은 풍부한 인문적·자연과학적인 소양 교육이 풍성하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차 생태주의가 역사적 단계의 획을 긋는 시대가 된다면, 그 사회의 가장 기본 교육은 자연 체험 놀이일 것이다. 그리고 자연에 흠뻑 빠진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교재는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교재로 이미 우리 앞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따라가며 자연과 재미있게 놀다 보면 한, 두 계절이 바뀔 즈음 자연에 심취한 자신과 어린이들을 새로운 자연 놀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미 놀이의 부재를 경험한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어떻게 아이와 놀아야 할지 당황해 하는 부모들을 보는 것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이런 부모들에게도 이 책은 매우 실용적인 유익한 아이와 함께 하는 자연 놀이 교육 지침서가 될 수 있을 듯싶다.

김정희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교수, 여성환경연대 생태미술팀

## 떨어진 꽃이 다시 피어났어요

옛날에는 지천으로 널려있는 꽃을 꺾어 팔찌도 만들고 화관도 만들고 화병에 꽂기도 했는데, 이제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이다. 또 어렵게 꽃을 발견해도 그것을 꺾어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마음 한 구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꽃나무를 상하게 하지 않고 즐거운 작업을 할 수는 없을까?

벚꽃이 하얀 신부처럼 화사하게 피어 있는 봄길이 있다. 바람이 벚꽃 잎을 간지럽힐 때마다 꽃잎이 흩날린다. 흩날리는 벚꽃 잎에 아이들도 팔랑팔랑 거린다. 여기에 봄비가 내리면 대지가 촉촉해지고, 꽃비가 내리면 사람들 마음마저 화사해진다.

꽃비는 단번에 아이들을 웃게 만든다.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더 많은 꽃잎을 흩날리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흔들어대는 아이들, 떨어진 꽃잎을 주워 유심히 쳐다보는 아이들, 땅에 있는 꽃잎을 눈송이처럼 한 움큼 주워 친구에게 힘껏 뿌리는 아이들.

떨어진 벚꽃으로 재미있는 미술 활동을 해 보자. 이것은 꽃을 꺾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작업이다.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하는 어린이와 어른도 쉽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만들 수 있다.



대상 : 초등학교 이상

준비물 : 골판지 상자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것, 한지, 파스텔, 풀

계절 및 장소 : 봄(벚꽃이 질 때), 벚꽃나무가 많이 있는 곳

### 작업순서

1.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즐긴다. 1분 동안 <손바닥으로 꽃잎 많이 받기> 놀이 같은 것을 해도 재미있다.
2. 한지를 찢어서 벚꽃나무와 잎을 만든다. 떨어진 꽃잎과 꽃받침을 주워서 벚꽃을 만든다.
3. 배경은 파스텔을 가루를 내어서 뿌리거나 문지른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젖지 않는 비와 녹지 않는 눈 맞기

“우리 오늘은 비는 비인데 몸이 젖지 않는 비를 맞으러 갈까?”

“봄비는 땅을 촉촉하게 해주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뚝뚝’ 두드려요. ‘어서 일어나세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을 비는 우리의 마음을 ‘뚝뚝’ 두드리지요.”

아이들은 몸이 젖지 않는 비가 대체 무엇일지 갖가지 상상을 하며 친구들과 재잘거린다. 서둘러 작업으로 들어가자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이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손바닥으로 꽃잎 많이 받기> 놀이를 곁들이면 재미있다. 흩날리는 벚꽃은 봄비 같기도 하고 눈 같기도 하다. 봄에 맞는 녹지 않는 하얀 눈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2) 다시 피는 꽃 만들기

벚꽃 잎은 봄별에 활짝 피었다가 어느 순간 바람 한 줄기에도 날아가 버리고 봄비에도 순식간에 떨어져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긴다. 떨어지는 겨울눈 같은 꽃잎

을 맞을 때는 즐거웠지만 잎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꽃을 볼 수 있다.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재미있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수록 작업은 재미있게 된다. 미리 준비한 적당한 크기의 골판지 위에 떨어진 꽃잎을 주워서 벚꽃나무를 만드는 작업이다. 나무와 잎은 한지를 찢어서 만들고 벚꽃은 떨어진 꽃잎과 꽃받침을 주워서 만든다. 벚꽃은 얇게 나풀거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연약한 꽃잎을 만난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벚꽃을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한다. 배경은 파스텔을 가루를 내어서 뿌리거나 문지르면 아주 근사한 작품이 탄생한다.

### 재료의 특성

접착 시트지를 사용하는 방법 - 접착 시트지는 쉽게 부착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땅에 떨어뜨린다거나 해서 쉽게 더러워지고 접착력이 떨어지게 된다. 흰색 접착 시트지나 검정색 접착 시트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접착 시트지 뒷면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골판지에 붙여서 사용한다.



떨어진 꽃을 뿌리며 노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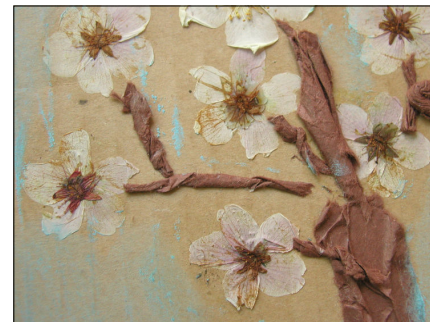
벚꽃처럼 아이들의 웃음도 흩날린다.



꽃잎이 망가질세라 조심, 조심



벚꽃이 살아났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는 작은 들꽃을 이용하여 더욱 아름답게 꾸민다.







떨어진 꽃잎을 하나, 하나 붙여서 만든 벚꽃



검은색 접착시트지를 이용한 작품

1. 떨어진 꽃으로 만들기

준비물 : 하드보드지, 한지, 딱풀, 떨어진 꽃잎

자유롭게 작업 하고 싶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 떨어진 꽃을 이용하여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다.



산 위로 달이 떠오르는 모습

“하늘을 어떻게 표현할까? 흙을 사용해볼까?”



## 2. 개나리를 이용한 작품

준비물 : 하드보드지, 한지, 딱풀, 개나리꽃잎



흑으로 땅을 표현하고 가지를 놓는다.



개나리꽃을 가지에 붙인다.

# 겨울눈

무심히 지나치던 작은 것에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 봄과 함께 찾아오는 마술과 같은 자연의 모습을 조금은 더 느낄 수 있다. 산과 들을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바라보는 것도 운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 가서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으며 눈으로 세밀히 바라보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은밀한 애정을 더욱 깊게 하는 길이 된다.

온기로 땅이 녹고 물이 돌기 시작하면 나무의 겨울눈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눈을 뜰 것이다. 겨울눈은 아이들에게 생소한 단어이다. 간혹 알더라도 이름만 겨우 안다.

겨울눈은 늦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생겨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에 자라기 시작하는 싹을 말한다. 겨울눈은 비늘잎으로 싸여 있는데 비늘잎 위에 솜털이나 진액이 덮여 있어 추위를 견뎌낸다. 겨울눈의 종류에는 잎이 되는 잎눈, 꽃이 되는 꽃눈, 잎과 꽃이 될 부분이 섞여있는 섞임눈이 있다. 겨울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겨울을 이겨낸 생명의 힘과 끈기를 느낄 수 있다.

겨울눈을 자세히 살펴보고 겨울눈을 그리거나 만들기로 표현해 보자. 그리고 겨울눈 속에서 뿜어 나오는 봄기운을 느껴 보자.



대상 : 초등학교 이상

준비물 : 그리기 - 돋보기, 도화지, 수채화 물감, 팔레트, 물통, 붓, 연필, 지우개, 색연필

만들기 - 돋보기, 찰흙, 끝을 뾰족하게 만든 나무젓가락(무늬를 새길 때 사용)

계절 및 장소 : 이른 봄의 야외와 실내

- 작업순서
1. 겨울눈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2. 겨울눈 찾기 놀이를 한다.
  3. 물감으로 겨울눈 그리기를 한다.
  4. 작업 후 아이들과 소감을 나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1)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미리 준비한 겨울눈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본적 있어요?”라고 물어보았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의 이름은 겨울눈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궁금해 하며 물어본다.

“살아있어요. 물에 담그면 무엇인가가 이 겨울눈에서 나와요.”

“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한다.

”겨울눈을 보면서 평소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무 가지에 난 새싹이라고 생각했어요.” “꽃봉오리.”

아이들은 겨울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우리는 추우면 외투를 입는데 나무는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나



무들 나름대로 추운 겨울을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겨울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겹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햇볕이 따뜻해지면 잠자고 있던 겨울눈이 깨어나 꽃으로도 나오고 잎사귀로도 나와요.”

아이들에게 겨울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겨울눈이 터지는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도 좋다. 아이들은 과연 겨울눈에서 무엇이 나올지 기다리며 오고 가며 겨울눈을 관심 있게 볼 것이다.

## 2) 겨울눈 찾기 놀이

작은 겨울눈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겨울눈 찾기 놀이를 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겨울눈을 자세히 보게 된다.

미리 준비한 겨울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아이들에게 주고 찾아보도록 한다.(아이들이 많을 경우는 겨울눈을 주지 않고 기억으로 찾도록 한다.) 처음에는 찾기 쉬운 겨울눈을 주는 것이 좋다. 너무 지역이 넓으면 아이들이 찾기 힘들 수 있으므로 구역을 정해주는 것도 좋다. 아이들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며 겨울눈을 비교하며 찾느라고 분주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나무마다 겨울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작고 귀여운 겨울눈을 좋아하게 된다. 아이들은 굉장히 잘 찾고 이러한 놀이를 재미있어 한다. 그리고 겨울눈을 굉장히 사랑스러워한다.

## 3) 겨울눈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둘이 짝이 되어 겨울눈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들고 한 사람씩 자신이 본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 겨울눈을 만들고 그려 보아요

여러 종류의 겨울눈을 찾는 놀이를 한 후에 찾았던 겨울눈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게 하고 찰흙으로 만들어보거나 물감이나 색연필로 그리도록 한다. 눈으로 본 것을 다시 만들거나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내면에 겨울눈이 확실하

게 자리 잡게 된다.

겨울눈이 워낙 작으므로 돋보기로 관찰하고 만들 때 아이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5) 겨울눈을 만난 후 아이들과 느낌 나누기

“다른 때는 겨울눈을 본격만적 했는데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겨울눈이 입고 있는 옷이 이렇게 여러 겹인지 몰랐어요. 겨울눈이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겨울눈을 찾는 게 재미있었어요. 만드는 것도 재밌어요. 겨울눈의 종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와 닮은 겨울눈을 찾아서 직접 만드니 제일 재밌어요. 비가 오는데 나가서 겨울눈을 찾기 놀이한 게 재밌었고요. 거의 다 비슷한 겨울눈인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겨울눈이 있는 게 신기했어요.”

“겨울눈이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어요.”

## 주의점

1. 사전준비 : 미술활동 할 곳을 살펴보고 몇 종류의 겨울눈을 미리 잘라서 준비한다. 아이들은 겨울눈을 잘라서 가지고 싶어 한다. 겨울눈은 봄에 꽃과 잎사귀를 피우기 위해 추운 겨울을 이겨냈으며 그러한 겨울눈을 우리가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2. 겨울눈을 찾을 때는 찾는 장소가 너무 넓지 않도록 구역을 정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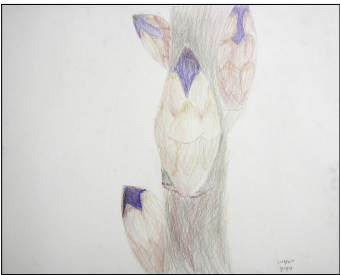
<물감으로 그린 겨울눈>



<찰흙으로 겨울눈 만들기를 한 것>



<색연필로 겨울눈을 그린 것>



하나 더!

1. 겨울눈에서 무엇이 나올까? - 상상해서 그리기

대상 : 초등학교 1학년생 이상

준비물 : 수채화 물감, 팔레트, 붓, 물통

계절과 장소 : 이른 봄 실내와 실내 모두 가능

사전작업 : <겨울눈 찾기 놀이> <겨울눈 그리기>

겨울눈 찾기 놀이와 겨울눈 그리기나 만들기를 통해서 겨울눈과 친숙해지면 겨울눈에서 무엇이 나올지를 상상해서 그리기를 한다. 그럴 때는 스케치 없이 물감으로 바로 그리도록 한다. 처음 하는 아이는 어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물감으로 바로 그리기는 자유로움을 주고 몇 번만 경험하면 아이들은 어려움 없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해서 그리고 나면 아이들은 겨울눈에서 정말 무엇이 나올지 궁금해 한다.

“앞으로 이 겨울눈에서 무엇이 나올까 궁금했어요.”

“나뭇가지를 진짜 키우는 것 같아요.”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했어요.”

“상상해서 하니까 마음이 행복해요.”



\* 겨울눈 → 겨울눈 그리기 → 겨울눈에서 무엇이 나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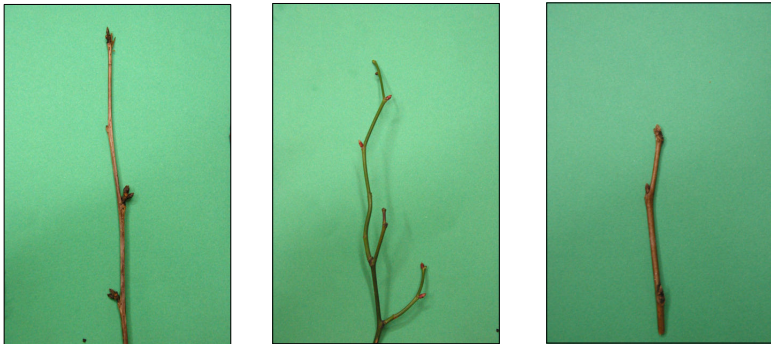
장미의 겨울눈을 그리고 겨울눈에서 무엇이 나올지 상상하고 그렸던 아이는 과연 겨울눈에서 무엇이 나올지 궁금해 했다. 오며 가며 겨울눈을 볼 수 있었던 아이는 겨울눈에서 장미꽃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 1>

<겨울눈에서 무엇이 나올까?>를 작업한 후 그 나무의 겨울눈이 터지면 상상해서 그렸던 것과 비교해본다.

<제안 2>

<겨울눈 찾기 놀이>한 후 찰흙이나 지점토로 <겨울눈 만들기>와 <겨울눈에서는 무엇이 나올까?>를 이어서 해도 된다.



<지점토를 이용하여 만든 작품>

겨울눈과 겨울눈에서 나올 것을 상상해서 만든 것. (지점토로 만든 다음 물감으로 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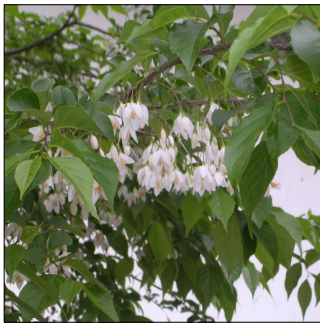


## 꽃잎 놀이

점점 봄이 짧아지고 있다. 잠깐만 한눈을 팔라치면 오는 봄을 반길 사이도 없이 가는 봄을 아쉬워해야 한다. 꽃이 좀 피었나 싶으면 황사 바람이 섞인 봄비에 맥을 못 추고 봄기운은 사라져버린다.

그렇지만 비록 봄이 짧아졌을지언정 봄을 알리는 봄꽃들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짧은 순간 피었다 지는 봄꽃을 찾아 느끼고 즐겨보자.

오늘은 때죽나무 꽃을 찾아 나서기로 한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산에 오르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다(사진). 때죽나무의 꽃은 아카시아 꽃향기보다도 진하므로 진한 향기를 따라 꽃을 찾아보자. 아이들은 주위에 있는 꽃에 코를 대어보며 향기를 찾아다닌다. 또 때죽나무는 박쥐들처럼 꽃이 땅을 향해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서 여느 나무의 꽃보다도 눈에 잘 띈다. 때죽나무를 이용해서 예쁜 놀이 도구를 만들어보자.



대상 : 유치부 이상

준비물 : 가는 꽃 철사, 때죽나무 꽃, 잔디꽃대나 사초꽃대

계절 및 장소 : 5월의 봄, 야외나 실내 다 가능.

### 작업순서

1. 때죽나무 꽃을 찾을 수 있도록 꽃나무에 대해 설명한다.
2. 나무에 달린 꽃과 떨어진 꽃을 보며 관찰을 한다.
3. 꽃을 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잔디나 풀의 꽃대를 찾는다.
4. 꽃대에 꽃잎을 꿰는다.
5. 꽃을 꿰 꽃대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놓고 비벼본다.
6. 꽃이 꺾어진 꽃대를 때죽나무 가지 끝에 매달아 놓고 감상해본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때죽나무 꽃은 어떻게 생겼을까?

때죽나무 꽃잎은 하나로 연결된 통꽃으로 고추꽃과 같은 하얀색이다. 중앙에 긴 암술과 암술을 둘러싸고 노란 봉모양의 수술이 빙 둘러 있다. 떨어진 꽃은 암술이 있던 가운데 부분만 구멍이 뚫린 모양으로 떨어져 있다.

꽃잎의 숫자를 세어보면 네 갈래로 갈라진 잎도 있고, 다섯 개, 여섯 개인 것도 있다. 한 나무에서 피어난 꽃잎의 숫자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아이들은 신기해한다.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다른 점을 발견해내면 아끼지 말고 칭찬해 준다.

때죽나무 매달린 꽃은 땅을 보고 있다. 마치 처마 끝에 달아놓은 풍경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댕~ 댕~’ 소리를 내는 모양이다. 아이들에게 때죽나무 꽃의 느낌을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이다.



## 2) 때죽나무 꽃으로 무엇을 만들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때죽나무 주변으로는 잔디가 심어져 있고, 가끔 긴 꽃대를 뽑내고 있는 풀들이 자라기도 한다. 잔디의 꽃대나 풀의 꽃대를 잡아 뽑으면 꽃대가 쑥 빠진다.

긴 풀의 꽃대를 보여주며 “애들아, 풀의 꽃대와 구멍이 난 꽃이 있는데,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자. 그러면 아이들은 “꽃을 썬 수 있어요.”하고 대답한다.

풀의 꽃대에 때죽나무 꽃을 썬다. 처음에는 꽃을 같은 방향으로 썬다.

“꽃을 마주보게 꿰어보면 어떨까?”

살짝 힌트를 주면 아이들은 꽃을 마주보게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또는 두 개는 위로 두 개는 아래로 향하게 끼워나간다. 그러다 보면 위로 향하는 꽃잎과 아래로 향하는 꽃잎의 숫자가 같아야 더 예쁜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반복에서 오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3) 만든 꽃잎으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꽃잎을 썬 꽃대를 이렇게 비벼볼까?”

엄지와 검지 사이에 꽃대를 놓고, 비벼 꽃대의 줄기가 돌아가게 한다.

“와! 빙글빙글 꽃잎 하나하나가 돌아가서 너무 예뻐요.”

여러 개의 꽃잎을 끼워서 한 개가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일 것 같았는데, 하나하나의 꽃잎이 각자 돌며 춤을 춘다. 그리고 끼운 꽃대를 나무 끝에 매달아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본다. 여러 개를 나란히 달면 발 같은 느낌을 받는다.

**주의점** - 때죽나무에 대해서 안내자가 미리 말해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찾아 나서도록 해야 한다.

**재료의 특성** - 1. 때죽나무에서 떨어진 꽃은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누렇게 시들어 버린다.  
2. 잔디 꽃대는 끝에 꽃을 달고 있어 멍뚱하고 꽃을 꽃아도 빠지지 않는다.



## 하나 더! - 꽃지짐(화전)을 닮은 그림

파스텔로 봄의 색을 표현하고 때죽나무 꽃과 함께 표현하면 화사한 봄 화면을 보고 느낄 수 있다.

### \*봄의 색과 꽃

준비물 - 스케치북, 파스텔, OHP 필름, 오공본드

- 작업순서 - 1. 때죽나무 꽃향기도 맞아보고, 꽃을 껴며 아름다움을 느낀다.  
2. 스케치북에 파스텔로 봄의 색을 찾아 칠하고 문질러 색을 섞게 한다.  
3. 모아온 때죽나무 꽃을 OHP 필름 위에 자연스럽게 뿌린다.  
4. 뿌려진 꽃을 오공본드로 하나씩 붙인다.  
5. 원하면 나뭇잎과 주위에 있는 자연물을 같이 붙인다.  
6. 봄의 색을 칠한 스케치북 위에 때죽나무 꽃잎을 붙인 OHP 필름을 놓는다.

다.

7. 아이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꽃잎놀이를 한 후 “봄은 어떤 색일까?” 하면 아이들이 파스텔에서 색을 찾는다. 찾은 색이 안내자의 생각과 다르다면 아이에게 왜 그 색을 골랐는지 물어 보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 주어야 한다.

봄 색깔의 파스텔을 2~3개 찾아 스케치북에 칠하고, 손바닥으로 골고루 퍼지게 문지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화사한 봄 색을 표현해 내지만, 가끔 색의 섞임과 손바닥에 느껴지는 감촉 때문에 색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문지르는 아이들도 있으니 이 또한 막지 말고 그대로 둔다. 색을 섞고 문지르면서 아이들 마음속으로 느껴진 색이 스며들 것이다.

사진





# 흙 느끼기

우리 어릴 적엔 땅에 첩퍼덕 앉아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흙 속에 비밀을 써놓고 다른 아이는 볼 수 없게 덮어 놓기도 했다. 흙은 아주 좋은 장난감이었고 재주 많은 친구였다. 소꿉놀이에도 필요했고 요즘처럼 흔하지 않은 스케치북 대신이었다. 우리들의 많은 이야기를 담았던 흙, 요즘 아이들은 흙의 감촉을 알까? 넘어졌을 때 옷에 묻은 흙을 털기 바쁜 요즘 아이들에게 황토 흙의 부드러운 감촉도 느껴보고, 흙에 코를 박고 냄새도 맡아보게 하고 싶다. “모래는 만져 봤어요.” 예상과 같다. 내가 먼저 흙을 두 손 가득 담아 향기를 맡아 보며, 흙을 두 손으로 비볐다. 내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따라한다. 흙을 만지면서 돌이 섞여서 거칠다고 한다. 흙도 자연을 이루는 소중한 부분임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흙은 더럽고 불결하고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대상 : 유치부 이상

준비물 : 황토 흙, 고운 체, 신문지, 환한 색 아크릴판

계절 및 장소 : 촉촉한 흙이 많은 봄이 가장 좋다. 실내와 실외 모두 가능.

- 작업순서**
1.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흙을 느낀다.(두껍이 놀이, 흙 끌어 모으기 등)
  2. 흙을 신문지 위에 체로 쳐 내린다.
  3. 환한 색 아크릴 판 위에 흙을 쳐 내린다.
  4. 3번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린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흙과 친해지자

아이들이 두 손 가득 흙을 모아 향기를 맡아본다. 흙 느끼기의 과정을 통해 떡고물처럼 두 손으로 비벼도 보고, 두꺼비 집 짓기며, 흙을 쌓아 나무를 꽂아 쓰러뜨리지 않고 흙 끌어가기 놀이도 하면서 흙과 점점 친숙해진다.

### 2) 부드러운 흙 만들기

흙을 가지고 놀기에 거친 흙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좋다.

우리 흙을 부드럽게 만들까?” 하면서 가방에서 체를 꺼내 보여주었다. 아이들의 반응이 갑자기 호기심에 찬 눈에서 알았다는 표정을 짓는다. 돛자리 위 한쪽에 신문지를 깔고 편하게 앉아 체질을 한다. 신문지에 쏟아져 내린 흙을 보면서 “흙이 너무 고아요.” 한다.

수북이 쌓인 흙을 두 손으로 문지르고, 떡 가루를 비비듯 두 손을 마주 비빈다.

“그냥 흙보다 더 부드러워요.”

“체로 친 흙이 향이 더 좋아요.”

“흙 향이 이렇게 좋은 느낌인지 처음 알았어요.”

3) 흙을 아름답게 느끼려면?

흙을 몇 번이고 체로 치다 싫증이 날 때까지 환한 색 아크릴 판을 꺼내게 해 판 위에 색이 보이지 않게 흙을 내리게 한다.

“우와~, 코코아 가루 같아요.”

“정말, 초콜릿 생각이 나요.”

“향기도 코코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신문지에 쳤을 때와는 다르게 색 아크릴판 위에 떨어지는 흙이 더 곱게 보인다.

4) 더 재미있게 노는 방법

내가 노래를 흥얼대며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린다.

“색이 더 선명하고, 예쁘게 보여요.”

“색 마술을 보는 것 같아요.”

손가락에 밀리는 흙 속에서 아크릴 판의 색이 선명하게 보인다.

꽃도 그리고, 말도 그리고, 생각나는 것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고 그려진 모양의 바깥 흙을 밀어내어 선이 아닌 면으로 만들기도 한다. 선으로 그림을 보던 아이들은 면으로 나타난 그림을 보면서 새로움을 느낀다.

**주의점** - 봄의 흙이 좋지만, 여름이나 가을에 수업을 하려면 흙에 물을 섞어 주어 촉촉하게 만들어 가면서 사용하면 된다.

**재료의 특성** - 1. 봄의 흙은 조금만 파도 수분이 가득해 먼지도 나지 않고, 촉촉해서 감촉이 좋다. 흙으로 그림을 그리고 잠깐 동안 놔두면 수분이 말라 색의 변화를 볼 수 있다.  
2. 화사한 색 아크릴은 흙과 만나 색이 더 곱게 보인다.  
3. 체가 고운 것은 체질이 느려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흙이 곱게 내려진 맛이 좋고, 굵은 체는 시원하게 내려지는 속도감이 좋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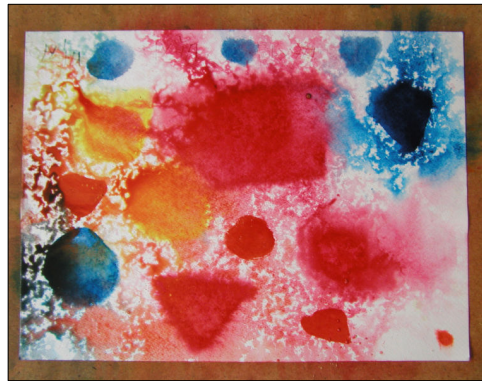




## 비가 그림을 그려요

봄비가 오고 나면 대지는 두꺼운 겨울 이불을 개어 장롱 속에 집어넣고 파란 봄옷으로 갈아입는다. 봄비는 못 생명들을 깨운다.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의 마음도 봄비와 함께 활짝 펼쳐진다. 비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빗속에서 놀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비 오는 날, 비를 마음껏 맞는 것이 쉽지 않다. 빗속을 거닌다면 짜릿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빗속을 신나게 다니면서 생명을 깨우는 이 봄비가 놀랍게도 멋진 그림을 그리는 재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좋은 도우미가 되었던 자신에게 뿌듯해 할 것이다.

아이들은 항상 새로움 자체이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새로움으로 뒤덮여 있고, 언제나 새로움을 찾아 나선다. 미술활동도 새로운 재료, 새로운 대상을 자주 접하다 보면 아이들의 창의성은 저절로 길러질 것이다.



대상 : 7세 이상

준비물 : 우비, 돋보기, 8절 머메드지(물에 약한 일반 도화지는 젖으면 종이가 일어나거나 찢어질 수 있다), 화판, 팔레트, 붓, 물통, 수채화물감(노랑, 빨강, 파랑)

계절 및 장소 :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지.

### 작업순서

1. 머메드지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의 간단한 형태를 노랑, 빨강, 파랑으로 섞지 않고 그린다.
2. 우비를 입고 화판에 1의 그림을 얹고 비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돌아다니다가 힘들면 적당한 장소에 화판을 내려놓고 비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3. 비가 스스로 그림을 그릴 동안, 비가 그림을 바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발견한 것은 안내자에게만 살짝 말하도록 한다(경쟁심 없이 여유롭게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용히 비밀스러운 것을 말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더욱 값진 비밀스러운 발견이 된다).
4. 비가 스스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놓았는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그림을 그리는 것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모인 아이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져 본다.

“여러분은 그림을 무엇으로 그립니까?”

십중팔구는 연필이나 색연필이나 붓 등을 열거할 것이다. 거기에 대고 ‘비가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고 말하면 아이들은 금방 눈이 퐁그래진다. 그것도 잠시, 늘 새로움을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은 금세 비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나름

대로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한다.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머메드지 위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비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주도록 알려준다. 색을 섞어서도 안 된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 아주 간단한 모양을 노랑, 빨강, 파랑 세 가지 색으로만 그리도록 한다. 그런 것은 다 비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도화지를 화판 위에 올려놓고 나갈 준비를 한다.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오늘은 비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아이들은 비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비를 도와주라고 알려준다.

## 2) 비가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주기

아이들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깔깔거리며 화판을 들거나 머리 위에 얹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빙빙 돌기도 하며 비와 함께 논다. 신나게 돌아다니던 다음 이제는 비가 혼자 그림을 그리도록 자리를 피해주자고 하며 적당한 장소에 화판을 내려놓는다.

## 3) 비가 만든 세상 발견하기

비가 스스로 그림을 그릴 동안 아이들과 비가 이 땅에 내려와서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것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찾은 사람은 자신만 아는 비밀이므로 진행자에게 살짝 말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아이가 발견한 것을 다른 아이들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크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비밀스러운 것을 말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한 것이 더욱 값진 발견으로 느끼게 된다.

아이들은 흥미진진한 얼굴로 비가 만들어내는 것을 찾기 위해 뿔뿔이 흩어진다. 어떤 아이는 몸을 구부리고 낮은 나무들 속을 헤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고개를 들고 무언가를 찾는다.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은 소나무 끝에 빛나는 보석처럼 달려 있는 물방울을 보는 느낌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진지하게 말한다.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요.”

“물웅덩이를 만들어요.”

“비가 나무에 반짝 반짝 하는 보석들을 만들어요.”

## 4) 비가 그린 그림 감상하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과 그림이 있는 곳으로 간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비가 만든 그림을 탄성을 지르며 좋아한다.

“와!”

“번개가 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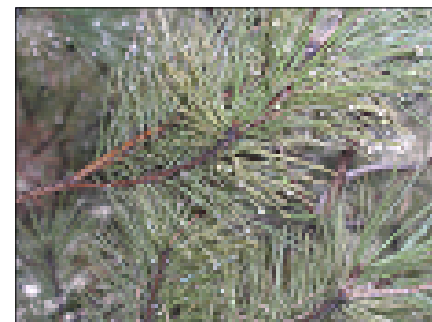
우리가 없는 사이에 비는 혼자서 멋진 그림을 그려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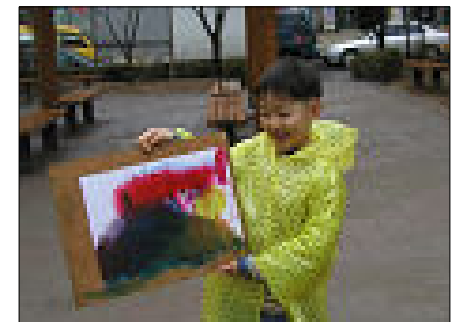
내 그림 좀 보세요~!



비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도록 적당한 장소에 그림을 놓는다.



비가 만든 빛나는 물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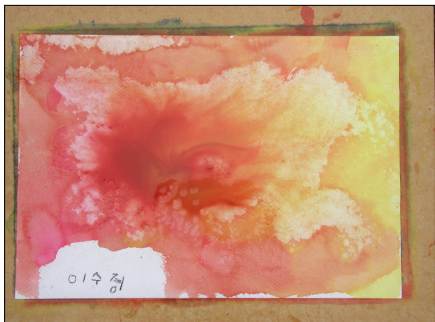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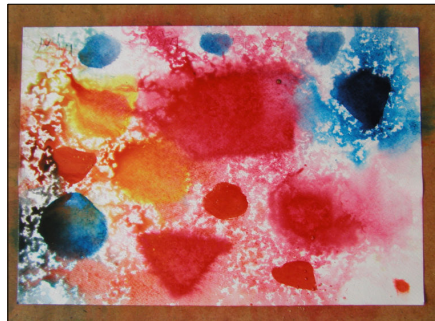
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 주의점

1. 처음부터 아이들이 사람이나 집 등을 그리게 되면 빗물이 떨어졌을 때 형태가 일그러지므로 아이들이 쉽게 실망할 수 있다. 따라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의 단순한 도형모양의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2. 비가 오는 양에 따라 비가 그림을 그리는 속도가 달라진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놓아두면 그림이 범벅이 될 수 있으니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한다.

## <비가 완성한 그림들>





## 자연과 친해지기 - 아기 잎

아이들에게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의 천이나 아름다운 색상의 순양모실을 주면 아이들은 눈을 살포시 감고 얼굴을 대며 사랑스럽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 품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폭신한 느낌이나 감촉, 어릴 적에 피부에 닿았던 이불이나 옷의 느낌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것 못지않게 촉각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갖 나온 아기 풀과 아기 잎을 만져보게 하면 아이들은 그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한다. 엄마의 품을 평생 잊지 못하듯이, 자연을 몸으로 깊게 느끼며 생태적 품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봄에 돋기 시작하는 새순들을 만나 아이들이 아기 풀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대상 : 유아 이상

준비물 : 돋보기, 접착시트지

계절 및 장소 : 봄, 가까운 실외

### 작업순서

1.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 잎을 보며 봄의 여러 모습을 보러 다닌다.
2. 여러 가지 자연물과 아이들이 쉴 그늘이 있는 적당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흰색 접착 시트지를 나누어 준다.
3. 접착시트지 위에 자연물을 붙이며 자유롭게 작업을 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1) 다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애들아 아기 잎 보러나가자.”

회색빛 도시에도 반갑게 손짓하는 푸름이 있다. 움트는 생명은 회색빛 도시라도 비켜가지 않는다. 봄바람을 쐬고 봄별을 맞으며 아이들과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자. 짙은 초록색의 사철나무에 꽃처럼 피어있는 연한 녹색의 새순, 주먹 권 아기 손 같은 단풍잎, 양중맞은 작은 잎을 가진 아기 풀. 야들야들, 반질반질, 반짝반짝, 보송보송.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처럼 작은 아기 잎 보는 것을 좋아하고 아기 잎의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 잎 보기를 하며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봄이 만들어 놓은 여러 모습들을 보러 다니자.

아이들은 노란 민들레를 만나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벌레가 벗어놓은 허물을 만나기도 한다. 때로는 매실을 줍고 ‘이게 뭐지?’ 하며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저런 얘기가 오고 간다.

## 2) 어린잎으로 그림 만들기

아이들과 산책을 하다가 적당한 장소에 자리를 잡는다. 아이들에게 마음에 드는 풀이나 잎을 조금씩 따거나 떨어진 잎이 있다면 주워오도록 한다. 이리저리 훑어져서 풀과 잎을 다 구해왔으면 흰색 접착 시트지를 나누어 준다.

접착시트지 위에 풀과 잎을 붙이며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아이들은 부담 없이 풀과 잎으로 작업을 한다. 송화 가루로 노란색을 내기도 하고 마른 솔잎을 이용하여 선의 느낌을 만들기도 한다.

### 주의점

1. 아기 잎을 만질 때는 살살 만지도록 한다.
2. 아이들은 잎이나 풀을 딸 때 그냥 잡아당겨서 잎이나 풀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잎이나 풀을 손톱으로 따는 법을 알려준다.
3. 한 나무나 풀에서 잎을 너무 많이 따지 않도록 한다.
4. 접착시트지 뒷면에 골판지를 양면테이프로 붙여준다. 접착시트지는 끈적거리므로 아이들이 손으로 잡을 곳이 필요하다. 뒷면에 붙인 골판지의 크기를 접착시트지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시트지 밖으로 나오게 한다.



제 그림 어때요?



짜잔~ 완성^^



이것 좀 봐요~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 봄의 빛깔

봄기운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봄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봄별이 빔어내는 다양한 빛깔에서 찾을 수 있다. 봄이 뿜어내는 빛깔을 보노라면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왜소해 보이는지 모른다. 눈에 보이는 꽃을 보고 ‘분홍’, ‘노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꽃의 순수함을 더럽힌 듯, 펄떡펄떡 뛰고 있는 고기를 얼음에 얼린 듯 무미건조해 보인다. 둔덕에 피어 있는 꽃들은 온 우주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색을 뿜어내며 하늘거린다.

우리가 때 이른 봄비에 꽃들이 떨어져 아쉬워하는 순간, 별 짬을 주지 않고 ‘투명한’ 초록빛으로 위로해 준다. 생명은 꽃이 전부가 아니라, 흔하디흔하고 넓디넓게 뻗어 있는 파란 이파리들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아이들이 인공적인 색이나 선명하고 자극적인 색에 길들여지면 자연의 색을 모르게 된다. 조미료에 길들여지면 소금과 조선크장만으로 간을 한 찌개가 뭔가 부족해 보이듯이... 아이들에게 인공적인 것도 없고, 선부른 언어도 없는 봄의 빛깔 자체에 눈을 돌리게 해 보자.



**대상 :** 초등학교 3학년생 이상

**준비물 :** 사각형으로 뚫은 종이, 잎과 꽃을 담을 수 있는 상자, 딱풀, 4절 도화지, 물감, 붓, 팔레트, 물통

**계절 및 장소 :** 봄의 야외

- 작업순서**
1. 아이들에게 오늘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아이들을 세 모둠으로 나눈다. 한 모듬은 가장 낮은 곳을 보고, 두 번째 모듬은 중간(허리 정도의 나무와 꽃)을 보고, 세 번째 모듬은 가장 높은 곳을 보도록 한다. 사각형으로 뚫린 종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3. 자연의 색을 충분히 본 후 식물을 색별로 채집한다. 식물을 채집하는 방법도 시범을 보인다.
  4. 채집한 식물로 도화지 위에 아름답게 배열하여 봄을 표현한다.
  5. 배열해 놓은 것들을 보고 색으로 표현한다.
  6. 소감을 나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봄의 빛깔 찾기

“봄의 색은 무엇인가요?”

“노랑색”, “분홍색, 연두색”, “초록색”

“할미꽃의 보라색이요.”

아이들을 세 모듬으로 나누어서 한 모듬은 가장 낮은 곳을 보고, 두 번째 모듬은 중간(허리 정도의 나무와 꽃)을 보고, 세 번째 모듬은 가장 높은 곳을 보도록 한다. 자연의 색을 충분히 본 후 색별로 자연물을 채집하도록 한다. 너무 많은 정보가 눈으로 들어오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의 색을 전체적으로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사각형으로 뚫린 종이를 통해서 자연의 색을 보면 좀 더 잘 볼 수 있다. 아이들



은 사각형으로 구멍이 뚫린 종이를 눈 가까이 대고 보곤 한다. 먼 곳을 볼 때는 종이를 눈에서 멀리 떼고 한 눈을 감고 보아야 잘 보인다. 아이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골고루 보도록 한다.

### 2) 식물을 채취할 때는?

아이들이 충분히 관찰한 후에 식물을 색깔별로 채취해오도록 한다. 아이들이 마구잡이로 꺾지 않도록 채취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인다.

모듬별로 모아온 자연물을 도화지 위에 아름답게 배열을 하여 봄을 표현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도화지 위에 표현 된 봄을 색으로 표현한다.

### 3) 봄의 빛깔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봄의 색은 그냥 초록색, 분홍색, 노랑색인줄

알았는데요. 분홍색도 여러 가지고요. 초록색도 여러 가지라서 색이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종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종류마다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봄의 색이 화사하고요. 초록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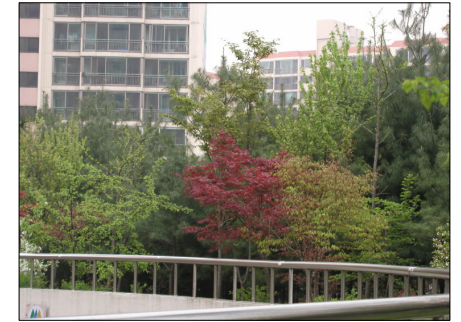
“제비꽃이 보라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얀색도 있었어요.”

“꽃의 색이 내가 아는 것보다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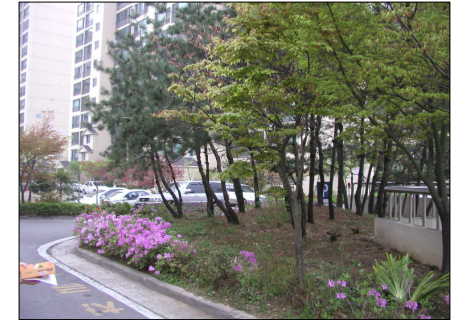
### 주의점

1. 식물을 채취할 때는 뿌리까지 뽑지 않도록 한다.
2. 풀이나 나뭇잎은 손톱이나 가위로 채취한다.
3. 너무 많은 식물이 채집되지 않도록 색깔로 하나씩만 따도록 한다.

사진 - 우리 동네의 봄



위



가운데



아래



자연의 윗부분



자연의 가운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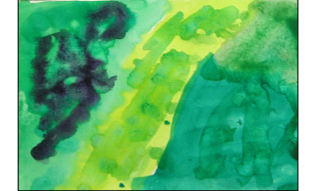
자연의 아래 부분



자연의 윗부분을 색으로 표현



가운데 부분을 색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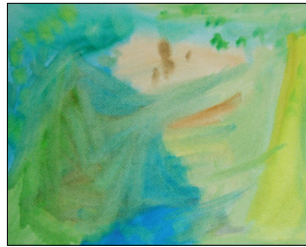
아래 부분을 색으로 표현





## <제안> 가을의 빛깔

1. 가을의 빛깔은 어떤 것일까? 이야기를 나눈다.
2. 가을의 빛깔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담아오도록 한다.
3. 담은 것들을 빛깔별로 나눈 다음 도화지 위에 아름답게 배열하여 가을을 표현한다.
4. 배열해 놓은 것들을 보고 색으로 표현한다.
5. 소감을 나눈다.





# 나의 나무 찾기와 수피그리기

촉각과 후각의 사용은 아이들의 감수성을 깨우는데 도움을 준다. 눈의 감각과 귀의 감각이 많이 발달한 요즘의 아이들에게 좀 서툰 감각이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고요하게 닫혀있던 감각들의 문을 열어보자. 나무 한 그루도 이전의 나무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어느새 아이들은 친구의 얼굴을 기억하여 그리듯이 나무의 수피를 그려보며 마음에 자기 나무를 아로새긴다.



대상 :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준비물 : 도화지, 파스텔

계절 및 장소 :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무가 있는 야외

## 작업순서

1. 자기 나무를 정한다.
2. '눈 가리고 자기나무 찾기' 놀이에 대해 설명한다.
3. 자기나무 느끼기-5분
4. 눈 가리고 자기 나무 찾기 - 눈 가린 사람을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사전 교육을 한다.
5. 파스텔을 이용하여 도화지에 수피그리기
6. 소감 나누기

## 이렇게 해 보세요

### 1) 자기 나무 정하기

아이들이 사는 동네에는 단풍나무, 목련나무, 감나무, 버즘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다. 아이들에게 자기와 닮은 나무를 찾으라고 한다. 아이들이 너무 멀리 떨어지면 프로그램을 하기가 힘들므로 구역을 정해준다.

### 2) 자기 나무 찾기 놀이에 대한 설명

자기 나무를 찾는 방법은 눈을 가리고 손으로 찾는 것이다. 눈을 가린 사람을 안내하는 사람은 눈을 가린 사람을 안전하게 잘 이끌어 주도록 한다. 놀이에 빠지다 보면 눈을 가린 사람이 다칠 수 있다. 특히 턱이 있는 부분이나 돌맹이가 있는 곳에서 발이 빠끗할 수 있다.

### 3) 자기 나무 느끼기

자기 나무를 눈을 가리고도 찾을 수 있어야 하므로 여러 감각을 이용해서 자기 나무를 알아본다. 시간은 약 5분을 준다.

“자, 자신의 나무를 만져 보세요. 얼굴도 대어 보세요. 안아보세요. 냄새도 맡아 보세요. 어떤가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매끈해요. 거칠어요.”

처음에는 얼굴을 대어보기 싫어하던 아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나무에 자연스럽게 얼굴을 대어본다.

### 4) 눈 가리고 자기 나무 찾기

눈을 가린 사람을 안전하게 안내해야한다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놀이에 빠지다 보면 눈을 가린 사람을 잊고 마구 인도하기도 한다. 눈을 가린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 아이들은 점차 친절한 안내인이 된다.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감수성도 일깨우지만 눈을 가린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섬세하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눈 가린 사람을 인도할 때는 곧바로 그 사람의 나무로 가지 말고 길을 돌아서 여러 나무를 거쳐서 가도록 한다. 그래야 눈을 가린 사람이 순수하게 촉감과 후각으로 나무를 찾을 수 있다. 이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갈 때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라는 노래의 곡조에 가사만 바꿔서 노래를 불렀다.

“주영이 나무를 찾으러 가자-아, 주영이 나무를 찾으러 가자-아  
주영이 나무를 찾으러 가자-아, 랄랄랄랄 랄랄랄랄 랄랄라-”

아이들은 눈을 가린 아이를 데리고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니며 나무를 만져 보게 한다. 그리곤 눈을 가린 아이가 자기나무를 맞출지 못 맞출지를 긴장 속에서 기다린다.

눈을 가린 아이가 자기나무를 맞추면 아이들은 그 아이가 대단한 듯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재미있어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차례차례 이 놀이를 하는

데 아이들은 전혀 지루해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나무를 정확하게 찾는다.

“자신의 나무를 어떻게 찾았어요?”

“내 나무는 한 쪽은 차갑고 한 쪽은 따뜻해요.”

“내 나무에는 상처가 있어요.”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신의 나무를 찾아낸다. 온기로 나무의 무늬로.

### 5) 수피 그리기

자신의 나무를 더욱 잘 기억하기 위해서 나무의 표면을 그려보는 작업을 해본다. 아이들은 자기 나무 앞에 앉아서 손으로 만질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나무를 본다. 한 참의 활동을 한 뒤여서 아이들은 조용히 자신의 나무를 바라보며 그리기에 열중한다. 도화지에 파스텔을 이용하여 수피를 그리도록 한다. 먼저 나무의 색을 파스텔로 문질러서 내고 그 위에 나무의 무늬를 그린다.

눈을 가리고 자기 나무 찾기를 한 후에 그린 아이들의 그림은 그러한 놀이 없이 바로 나무의 표면을 그리도록 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고 표현한다.

### 6) 소감 나누기

“그리면서 나무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이 있나요?”

“나무에 있는 특별한 문양”

“생명”

“나무의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나무 모양, 나무 무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자기나무 찾기 놀이를 했는데 나무의 느낌이 어땠어요?”

“매끈매끈하고 차가운 느낌.”

“나무에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햇볕을 잘 받는 곳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따뜻하고 반대쪽은 차가웠는데 그것이 인상적이었나 보다.

“까칠까칠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따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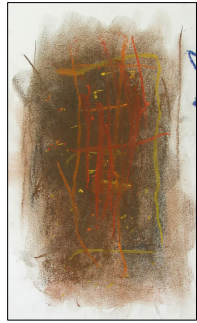
### 주의점

1. 자기 나무 찾기를 할 때 아이들이 너무 흥분하면 눈을 가린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을 수 있다. 따라서 재미있게 진행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안내자가 조절을 하여야 한다.
2. 눈을 감고 나무를 찾을 때 키가 작은 나무일 경우 아이들은 나무표면의 느낌으로 나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의 형태로 찾으므로 자기 나무를 정할 때 키가 큰 나무를 정하도록 한다.

### <파스텔로 그린 수피>



소나무



느티나무



### <붓펜/ 붓펜과 파스텔로 그린 수피>



단풍나무



양버즘나무

### <색연필로 그린 수피>



단풍나무



눈 가리고 자기 나무 찾기



눈 가린 사람을 안내하고 있다.



수피 그리기



# 애들아, 봄꽃으로 기찻길을 꾸미자 -기찻길과 봄꽃 콜라주-

철길 앞에 서면 누구랄 것도 없이 철로에 올라서고 싶어진다. 양손을 벌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천천히, 그러나 집중해서 걷게 된다. 철길에 올라선 아이들도 중심잡기가 몸에 익으면 차츰 걸음걸이가 발레를 하듯 우아해진다. 멀리 보이는 철길 끝을 보며 바람을 타고 팔을 벌려 걷다 보면 한 마리 새가 된다. 비로소 자유를 느낀다. 또 철길 주변은 콘크리트 도시에서 그나마 풀이나 들꽃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활동은 기찻길을 따라 여행하듯 걸어보며 변화하는 계절도 느껴보고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신나는 만들기를 해보는 것이다.



대상 : 유치부 이상

준비물 : 2절 우드락, 2절 검정색 시트지, 가위, 본드

계절 및 장소 : 사계절과 기찻길

## 작업순서

1. 미리 우드락 판에 검정색 시트지를 고정시켜 가져간다.
2. 기찻길 레일 위를 걸으며 중심잡기를 하며 걷는다.
3. 두개의 팀으로 나누고, 한 팀은 레일에 귀를 대보고, 한 팀은 둘로 레일을 두드려 서로 맞추기를 한다.
4. 레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레일의 소재를 찾아다 시트지에 붙인다.
5. 작은 돌맹이를 붙여 철길을 완성한다.
6. 붙인 레일 주변에 꽃과 풀을 따다 콜라주를 완성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철길 놀이

먼저 철길에 올라서서 중심잡기를 해본다. 평행봉을 걷듯이 양손을 벌리고 발끝으로 철길을 스치며 걸어본다. 걸어보기를 한 다음에는 한 사람은 레일에 귀를 대고, 다른 사람은 돌맹이로 레일을 두드려 몇 번을 두드렸나 숫자 맞추기를 한다. 몇 번 진행이 되면 한 단계 높여 동요의 가락을 두드려 맞추기를 한다.

### 2) 철길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나?

“딱딱한 레일은 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올라서서 중심잡기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레일 밑에 돌맹이가 항상 많이 있어요.”

### 3) 딱딱한 철길은 어떤 재료를 써서 표현해 볼까?

“저기 마른 나뭇가지로 하면 어떨까요?”

적당한 굵기의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씩 주워보자. 기찻길이 휘어졌다면 곧은 나뭇가지와 휘어진 나뭇가지를 연결해 철로를 깎는다.

“여기 철길 밑에 있는 것을 부목이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이들은 “철길보다 가는 가지를 가져다가 붙이면 돼요.”한다.

4) 기찻길을 봄꽃으로 꾸미자

기찻길 옆 논에서 짚을 잘라다 세워 붙이며 논이라고 한다. 돌맹이를 잘게 조각내 작은 돌맹이로 만들어 기찻길 위에 놓는다.

보라색 제비꽃, 노란 꽃다지, 흰색 냉이 꽃, 쇠뜨기 포자와 풀을 따서 장식하며 레일을 따라 걷는다. 기찻길 밑으로 흐르는 물은 풀로 물결을 표현하고, 죽제비 싸리 열매는 올챙이 같다. 완성된 기찻길을 보면서 “우와~ 우와~” 탄성을 지른다.

5) 기찻길을 만들어 본 느낌 나누기

“이렇게 예쁜 기찻길이 될 줄은 몰랐어요.”

“풀은 부드럽고, 돌은 딱딱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기분이 더 좋아요.”

“기찻길 지도를 만든 것 같아요.”

“까만 시트지 위에 있는 꽃 색이 더 예뻐요.”

## 주의점

1. 기찻길을 만드는 나뭇가지와 돌맹이를 붙일 때는 본드를 사용해야 떨어지지 않는다.
2. 필요 이상의 꽃과 풀을 꺾지 않게 한다.
3. 되도록이면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기찻길을 이용하거나 기차가 다니는 기찻길 이라면 안내자는 아이들의 안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 재료의 특성

1. 시트지는 무겁거나 하지 않은 웬만한 것은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어 표현하기 쉽다.
2. 우드락 판은 흐느적거리는 시트지와 콜리주 한 작품을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준다.

하나 더! - 산길, 숲길, 논길 등 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

## 사진



## 나무-나그네의 여행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이야기 한 자락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엄지만한 엄지공주나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던 옛 이야기의 주인공인 주먹이처럼 된다면 나무도 한참을 걸어서 여행해야 하는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다.

‘나무-나그네의 여행’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집중력과 상상력을 길러준다. 과나리붓집 하나 짊어지고 이제 나무 여행을 떠나자. 아이들은 아주 조그만 나그네, 자연을 여행하는 꼬마 여행가가 되는 꿈을 꿀 것이다.



대상 : 초등학교 2학년생 이상

준비물 : 도화지 또는 한지, 수채물감, 팔레트, 붓, 물통, 돗자리

계절 및 장소 : 봄, 여름, 가을, 겨울, 적당한 나무가 있는 실외

- 작업순서**
1. 안내자는 사전 답사를 통해 적당한 나무가 있는 장소를 정한다. 나뭇가지는 2개 내지 3개로 갈라져야 하고 나무 밑에 누웠을 때 가지가 잘 보여야 한다.
  2. <나그네의 여행>놀이를 설명한다.
  3. 안내자가 놀이의 진행을 한다.
  4. 아이들이 놀이의 진행을 한다.
  5. 생동감 있는 나무를 그리기위해서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물감으로 곧바로 그린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여행을 위한 답사와 준비

안내자는 미리 현장을 답사하여 프로그램에 적당한 나무를 고른다. 나무는 가지가 잘 보여야하고 나뭇가지가 2개 내지 3개로 갈라지면서 성장하는 나무를 고른다. 저학년일 경우는 나뭇가지가 단순한 나무를 고른다.

“걸어서 여행을 해보았어요?”

“걸어서 여행하니까 어땠어요?”

이러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억을 더듬으며 여행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야 <나무-나그네의 여행>놀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오늘은 누워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자, 모두 이 나무 밑에 누워보세요.”  
누워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 2) 나그네의 여행 설명



“백설 공주의 일곱 난장이보다 더 작은 사람이 있었어요. 요만해요. 이렇게 걸어 다녀요.”

안내자는 손가락 길이만큼의 크기인 여행자의 걸어 다니는 모습을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말투와 동작으로 보여준다.

“나뭇가지가 길이에요. 길을 가다가 갈래길이 나오면 여행자는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 고민하다가 오른쪽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워서 눈으로 그 여행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계속 작은 여행자를 눈으로 쫓아가다가 여행자가 도착한 곳을 맞추는 거예요.”

설명만으로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 안내자는 나무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여행자가 걸어가다가 갈림길에서 망설이다가 어느 한 길로 가는 것을 보여준다. 나무에 따라서 세 갈래 길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왼쪽 길, 가운데 길, 오른쪽 길이라고 표현한다.

고학년일 경우는 길을 가다가 되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도 재미있다. ‘어, 이 길이 아닌가? 아까 그 갈림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군.’라고 하며 좀 전의 갈림길로 와서 다른 길로 가도 된다.

아이들이 저학년이면 단순하게 고학년이면 좀 더 복잡하게 길을 가면 된다. 그날 참석한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정하면 된다.

### 3) 여행을 떠나자

“자, 그럼 여행을 떠나볼까요? 누워서 눈으로만 걸어가는 겁니다. 상상으로 손가락 크기의 작은 사람을 생각하세요.”

옛날 옛날에 작은 손가락 크기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집 근처 외에는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먼 곳에 있는 황금 새의 깃털을 가지고 와야 했지요. 어느 날 아이는 결심을 했어요. 길을 떠나기로요. 피나리 붓짐을 지고 길을 떠납니다.

(흥겹게 흥얼거리면서 말한다. 노래를 지어 불러도 좋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황금 새가 있는 곳으로, 황금 새가 있는 곳으로,

오, 두 갈래 길이 나타났네?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갈까?

아, 왼쪽 길로 가야지. 왼쪽 길로 가자, 왼쪽 길로 가자.

오, 두 갈래길이 또 나타났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네. 어디로 갈까?

아, 좁은 길로 가야지. 오른쪽 길로 가야지.....

오른쪽 길로 가자, 오른쪽 길로 가자.

어? 길이 막혔잖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좀 전의 갈림길로 돌아왔네.

그럼 이번에는 왼쪽 길로 가자, 왼쪽 길로 가자.

⋮  
⋮

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지어서 해도 되고 안내자가 재량껏 하면 된다.

안내자가 한 번 진행을 하여 아이들이 놀이를 익히면 아이가 문제를 내도록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욱 흥미로워한다. 아이들이 어릴 경우는 따라오고 있는지를 잘 살펴본 후 놀이 흐름의 빠름과 늦음을 조절하면 된다. 나뭇가지의 끝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 4) 나무 그리기

나그네의 여행 놀이는 상상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이 놀이 후에 여행했던 나무를 그리면 따로 관찰을 하지 않아도 나무의 생김새에 대해서 잘 알게 됨으로 잘 그릴 수 있다.

## 주의점

1. 나뭇가지 길을 갈 때 안내자가 말투를 평이하게 하면 자칫 재미없게 될 수 있다. 이야기에 운율을 넣어서 하면 한결 흥이 난다.
2. 나무 밑에 누웠을 때 위치에 따라 나뭇가지가 다르게 보이므로 아이들이 너무 넓게 퍼져서 눕지 않도록 한다.
3. 나뭇가지 길을 갈 때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 지를 보고 속도를 조절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칫 어려워 할 수 있다.
4. 누워서 나뭇가지를 볼 때와 서서 볼 때가 다르므로 문제를 내는 사람은 앉거나 누워서 낸다.
5. 아이들이 나그네의 여행놀이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표현되기 위해선 밑그림 없이 붓으로 곧바로 그려야 한다.



손가락으로 여행자가 되어서 나무 위를 걸어가기



나그네의 여행놀이 후에 나무를 바라보는 모습



아이들에게 나무가 거대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나무그림은 점점 커진다.



# 벌레 먹은 나뭇잎

숲을 산책하다보면 숲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나뭇잎마다 애벌레며 곤충들이 눈에 잘 띄고, 개나리 잎에 특히 하얀색을 한 애벌레가 유난히 많다. 애벌레는 우리가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아작아작 소리를 내며 잎사귀를 맛나게 먹고 있다. 잎 뒤에는 잎을 갉아먹고 배가 부른 애벌레들이 꼬리를 들고 잠들어 있다. 이렇게 애벌레의 식사를 훑쳐보는 것도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방법 중 하나다. 그리고 볼록 렌즈의 돋보기가 햇빛을 모으면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재미있어 한다. 벌레 먹은 잎사귀를 관찰하고 자연의 힘으로 표현해 본다.



대상 : 초등학교

준비물 : 색종이 한 권, 돋보기, 스케치북, 풀, 가위, 연필

계절 및 장소 : 햇볕이 강한 여름과 가을, 실외

## 작업순서

1. 숲을 걸으면서 애벌레가 사는 잎을 찾는다.
2. 여러 모양의 벌레가 먹은 잎사귀를 모은다.
3. 벌레 먹은 잎사귀를 관찰하고 그린다.
4. 색종이를 돋보기로 태워 벌레 구멍을 만든다.
5. 태운 색종이 뒤에 어울리는 색종이를 덧댄다.
6. 벌레 먹은 색종이에 나뭇잎을 그리고 오린다.

## 이렇게 해 보세요

구름이 낀 파란하늘, 돛자리를 펴고 누워서 하늘을 본다. 움직임이 조심스러이 바람이 구름을 몰고 있다. 하늘엔 구름이, 땅엔 나무가 가을을 준비한다. 나무마다 열매를 달고 있어 박새가 요란하다. 나뭇잎은 벌레들이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있다. 나뭇잎 종류에 따라 구멍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

1) 잎사귀마다 뚫려 있는 구멍의 모양이 틀려요.

여러 형태의 벌레 구멍이 나 있는 잎사귀를 하나씩 모은다. 야생화의 잎사귀인 한 해 살이 풀과 나무의 잎을 골고루 모은다. 한 해 살이 풀에는 커다랗고 둥그런 구멍이 많이 보인다. 잎맥이 부드러워서 그런 걸까? 애벌레가 잎맥도 갉아먹어 둥그란 모양을 하고 있다. 참나무 잎은 성글고 촘촘한 그물을 연상하게 하는 망이 많다. 이것을 보면 참나무 잎은 잎맥이 뻗뻗해서 연한 부분만 갉아먹은 것을 알 수 있다. 스케치북에 모아온 벌레 먹은 잎을 스케치한다.



## 2) 벌레 먹은 참나무 잎 루페로 관찰하기

루페로 참나무 잎을 본다.

“참나무 잎에 난 벌레 구멍을 보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을 말해보자.”

“가난한 집 같아요.”

“너덜너덜하지만 예뻐요.”

“거미줄 같아요.”

## 3) 돋보기로 벌레 먹은 구멍 표현하기

벌레 먹은 구멍을 어떻게 표현할까? 양지에 서면 햇볕이 따갑고, 그늘에 들어가면 선선함이 감돈다. 그늘에 오래 서 있으면 햇볕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색종이와 돋보기를 들고 햇볕을 맞으러 간다. 돋보기는 물체를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햇빛을 모으는 역할도 한다. 햇볕이 너무도 강해서 꼭 검정색 종이가 아니라도 햇볕 모으기가 쉽다. 몇 초만 모아도 연기가 솔솔, 종이 타는 냄새가 난다. 돋보기를 움직이며 벌레 구멍을 만든다. 벌레 구멍을 만들다 해가 들어가면 아쉬워한다. 구름이 낀 날은 그렇게 해와 구름과 번갈아 가며 논다.

## 4) 벌레 구멍을 예쁘게 만들기

구멍 낸 색종이 뒤에 어울리는 예쁜 색지를 풀을 발라 붙인다. 그러면 벌레 구멍이 한층 더 선명하고 예쁘게 보인다. 미리 스케치해 둔 나뭇잎을 보면서 색종이에 다시 그린 다음에 가위로 오린다. 연필로 잎맥을 그리면 벌레 먹은 나뭇잎이 완성된다.

“돋보기로 벌레 구멍을 만들었는데, 그 구멍이 예뻐 보이게 뒷면에 색지를 붙여보자.”

“노란 색도 붙이고, 주황색도 붙였네.”

“와아, 구멍마다 다른 색을 붙여 주니까 더 화려한 잎사귀가 되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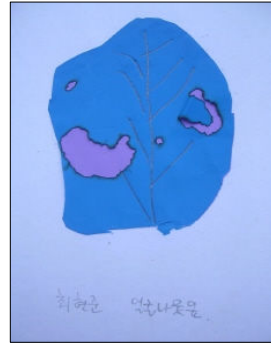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창의적이게 색을 써서 잎사귀를 완성한다.

**주의점** - 돋보기로 모은 햇빛을 이용해 색종이를 태우는 것을 본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옆에 있는 은행잎과 나뭇잎을 태워보길 원한다. 함께 태워 볼 수는 있지만 당부하기를 절대 아이들 끼리, 근처에 나뭇잎이나 종이가 많은 곳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하고, 특히 혼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두어야 한다.

하나 더!

같은 재료로 햇볕을 모아 이름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도 재미있다.





박정원

최현은

김민정

이주은

김민정

가을  
가을  
가을

가을

가을

## 돌이 보석이 되었어요

어릴 적 돌은 재미있는 놀이도구였다. 큰 돌로 작은 돌을 부셔서 여러 가지 색의 돌가루를 만들며 소꿉놀이하거나 작고 반들반들한 돌을 주워서 공기놀이를 하던 기억들. 그리고 돌끼리 부딪혀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며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있다.

요즘 아이들은 놀 시간도 부족하지만 로봇,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돌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 같다. 아이들의 눈길을 돌로 이끌어 보자.



**대상 :**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준비물 :** 돋보기, 8절 도화지, 전지크기의 소포지, 파스텔, 포스터물감, 붓, 물통, 풀, 가위

**계절 및 장소 :** 5월의 봄, 야외나 실내 다 가능.

### 작업순서

1. ‘나는 누구일까요?’를 통해서 아이들이 돌에 호기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또는 <열 고개>를 해도 된다.
2. 마음에 드는 돌을 다섯 개씩 가져오도록 한다. 자연의 여러 모습을 보고 즐기도록 시간을 충분히 준다.
3. 돌 표면의 무늬가 잘 보이도록 가져온 돌을 물에 깨끗이 씻는다.
4. 돌에서 모양 찾기 놀이를 한다.
5. 돋보기로 돌의 무늬를 보고 파스텔로 8절 도화지에 돌의 무늬를 그린다.
6. 한 사람이 전지에 큰 바위를 스케치한다.
7. 5번에서 그린 돌의 무늬 그림을 찢어서 6번에서 스케치한 곳에 붙인다.
8. 돌 주변은 물감으로 흠을 표현하든가 풀칠을 듬뿍하고 흠을 뿌려서 표현한다.
9. 아이들과 완성작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열 고개 놀이

“나는 누구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땅속에 있기도 하고 땅 밖에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위와 같은 질문으로 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 또는 <열 고개>



를 해도 좋다.

#### 2) 마음에 드는 돌 고르기

열 고개 놀이가 끝난 뒤 돌이 많은 곳으로 달려간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닌다. 돌을 손에 하나 가득 들고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주머니에 두툼하게 넣고 다니는 아이도 있다.

“여기 곤충집이 있어요.”

큰 돌멩이를 들추다가 벌레집을 발견한 아이가 우리들을 부른다. 아이들이 모여 들어서 고개를 아래로 박고 서로 벌레집을 보려고 애쓴다. 벌레들이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랐는지 부산하게 움직인다.

아이들이 돌을 가져오면 돌을 물에 깨끗이 씻는다. 먼지가 씻긴 돌은 아름다운 색과 무늬를 드러낸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돌, 저 돌을 만져본다. 그 중에서도 반들반들한 돌의 감촉을 제일 좋아한다. 돌을 자기 얼굴에 문질러보기도 하고 내 얼굴에 문질러 주며 ‘정말 부드럽죠?’라고 한다.

#### 3) 돌에서 모양 찾기

모양 찾기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 돌을 좀더 잘 관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이들은 작은 돌을 들여다보며 상상의 날개를 편다.

“혹이 난 공룡 얼굴!”

“절벽 같아요.”

“폭포.”

돌마다 약간의 반짝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것을 찾기 위해서 돌을 유심히 본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색을 발견하기도 하고 한쪽 면은 거칠고 다른 면은 부드러운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 4) 돌의 무늬 그리기

돋보기로 돌을 자세히 보며 8절 도화지 전체에 돌의 무늬만 파스텔로 그린다. 파스텔로 그리는 작업을 아이들은 별 어려움 없이 해낸다. <돌의 무늬 그리기> 작

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돌들의 아름다운 색과 무늬를 만나게 된다.

#### 5) 각자의 돌을 합쳐서 바위 만들기

“우리가 그린 돌을 합쳐서 큰 바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어떻게요?”

“우리들 중 누군가 저기 큰 종이 위에 커다란 바위를 그리면 거기에 우리가 그린 돌의 무늬 그림을 찢어 붙여서 큰 바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바위가 나올지 한 번 볼까?”

한 아이가 전지종이에 아주 커다란 바위를 스케치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그림을 찢어서 붙이고 싶은 곳에 붙이며 새로운 돌을 만든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아이도 점점 그 속에 빠져들어 간다. 돌은 점점 커지고 신비스러워진다.

돌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물었다.

“이것을 땅속에 있는 것으로 할까, 땅 위에 있는 것으로 할까?”

“땅속이요.”

의견의 일치를 본 아이들은 돌 주변의 흙을 물감으로 그린다. (또는 풀칠을 듬뿍 하고 흙을 뿌려도 좋다.) 드디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 같은 돌(바위)이 탄생했다.



돌을 보러 다니는 아이들



돌의 무늬 그리기



### <작업과정>



1. 큰 바위를 스케치한다.



2. 돌의 무늬 그린 것을 찢어서 붙인다.



3. 바위 주변의 흙을 물감으로 표현한다.  
또는 밀가루풀칠을 하고 흙을 뿌려 표현한다.



4. 완성작  
'돌이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

# 바람아, 놀자!

더운 여름이라면 한 조각의 바람이 그저 고마울 수밖에 없을 그런 날이다. 바람이 불면 아이들과 바람을 만나는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적당한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바람이 분다. 어른이라면 손을 벌리고 서서 바람을 맞는 자세로도 충분히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경이를 느낄 수 없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바람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바람의 결을 느끼고 바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보자. 아이들이 바람에게서 자유를 배울 수 있도록.



**대상 :** 유아 이상

**준비물 :** 여러 가지 색의 양모실, 접착시트지(뒤편에 골판지상자를 잘라서 붙인다.), 폭5cm/길이 70cm 또는 1m의 여러 가지 색의 실크천 (손목에 낄 수 있는 고무줄이 달려 있는 것. 유아는 실크천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한다.)

**계절 및 장소 :** 바람 부는 날

**날씨 :** 봄, 여름, 가을, 겨울

## 작업순서

1. 바람에 대한 생각 나누기와 바람 느껴보기를 한다.
2. 바람이 부는 느낌을 몸으로 충분히 느껴보고 바람을 좋아하는 식물들을 자연 속에서 찾아본다.
3. 실크천으로 바람을 보고 바람을 타고 놀기를 한다.
4. 양모실로 접착시트지에 바람을 표현하도록 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바람에 대한 생각 나누기

아이들이 바람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갖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동기부여가 프로그램의 성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에게 바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해 본다. 아이들은 좀 뜬금없어 하면서도 곧잘 대답을 쏟아낸다.

“인간처럼 생각해요.”

“달팽이처럼 생겼어요. 달팽이 껍질처럼 동그랗고 개똥처럼 생겼어요.”

꽃이 바람에 쓰러질 때 동그랗게 되기 때문이라는 그럴 듯한 이유를 든다. 달팽이란 말에 힌트를 얻었는지 라면처럼 생겼다, 우동이 돌돌 말린 것처럼 생겼다면 아이들이 재잘거린다. 아이들은 꽃이 바람에 휘는 모습을 손으로 표현하며 서로



질세라 바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의 생김새를 어찌 알았을까? 바람은 보통 때는 안 보이지만 가끔 보일 때가 있다고 알려주면 아이들은 설 새 없이 보이는 바람에 대해서 말을 이어간다. 비가 올 때 바람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쉬익 하고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앞에 마치 바람이 있는 듯이 실감나게 손짓을 해가며 상기된 얼굴로 설명을 한다.

바람을 맞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부드러움, 차가움, 시원함? 날씨에 따라 다를 것이다. 바람을 느끼러, 바람을 잡으러 나가보자고 제안한다.

## 2) 바람 느끼기

‘바람아, 어디 있니?’

밖으로 나와 바람이 놀러 오기를 기대하면서 소리쳐 불러본다. 그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아이들은 ‘저기 있다. 저기’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어디?”

“보이잖아요. 하얀색으로 쉬익 하면서 보이잖아요. 하얀색 줄무늬 같은 것.”

“너희는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바람이 불잖아요. 나무도 흔들리잖아요.”

그때 바람이 세계 불어왔다.

“보여요, 보여. 여기다.”

아이들은 바람 쪽으로 한발이라도 더 다가가겠다는 듯 뛰어다니며 바람을 온몸으로 느낀다.

바람이 좀 잠잠해졌다.

“햇볕이 바람을 막고 있어요.”

“햇볕이 우리를 싫어해요. 바람을 막고 있어요.”

햇볕이 바람을 막고 있다는 아이들의 표현이 재미있다.

“비 오는 날은 바람이 되게 많은데. 얼굴 다 맞아요.”

“뛰어 봐요. 우리가 뛰니까 바람도 우리를 좋아해서 막 따라와요.”

아이들은 나도 뛰어보란다. 그때 한 아이가 멀리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저기 많이 모였다’ 하고 외치며 바람 부는 쪽으로 달려가자 다른 아이들도 함께 달려간다.

## 3) 바람이 좋아하는 나무나 풀 찾기

아이들이 충분히 바람을 느꼈을 때에 바람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나 풀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아이들은 자기 주변의 바람에 살랑 살랑 춤추는 작은 풀이나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바람이 좋아한다고 말한다.

## 4) 실크천으로 바람과 놀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바람을 맨 몸으로 느꼈으면, 이제 실크천을 이용하여 더욱 재미있게 바람과 놀아보자. 아이들에게 색색으로 두 개씩 실크천을 나누어 준다. 실크천은 가볍고 감촉도 좋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부드럽고 아름답다.

아이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목에 실크천을 감고 뛰어다니면서, 바람이 분다며 신나 한다. 아이들은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양옆으로 벌리기도 하면서 걷다가, 뛰어가다가 하면서 천을 바람에 날린다.

## 5) 바람을 양모실로 접착시트지에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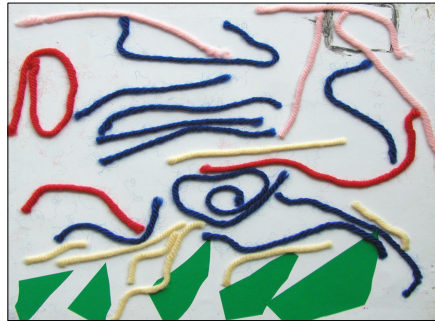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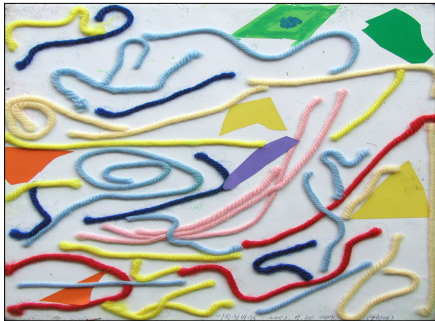
바람과 잘 논 다음에 네모난 접착시트지에 양모실을 붙여서 바람을 표현해 본다.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충분히 놀고 들어온 아이들은 바람을 쉽게 표현한다.

하나 더!

아이들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 썽썽 부는 바람이 되어 나무, 풀, 친구들 사이로 날아다녀보기도 해 본다.

## 주의점

1. 실크천 등을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주면 아이들이 바람보다 시각적인 도구에 관심이 쏠려 바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 가방 등에 잘 숨겨두었다가 순서가 되면 꺼내도록 한다.
2. 아이들이 몸으로 바람을 느끼고 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준 뒤에 실크천을 주도록 한다. '우리 동네에서 바람이 가장 잘 부는 곳을 찾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린 아이들은 신나게 놀 수 있다. 안내자는 아이들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지려고 할 즈음에 실크천을 제공하면 아이들의 흥미는 다시 상승곡선을 탄다. 때로는 도구가 순수하게 바람을 느끼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과 재미있게 논 아이는 '가득 찬 바람'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 나무의 얼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된다. 그럼 나무는 어디를 보고 찾을 수 있을까? 나무를 찾는 방법으론 나무의 잎과 수피(나무의 껍질)의 무늬를 보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나뭇잎이 없는 겨울에는 어떻게 찾지? 잎도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지만, 잎은 나무가 사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무의 얼굴은 나무의 수피를 보며 찾는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무늬가 다름을 알고 무늬에서 숨은그림찾기를 하며 상상력을 키운다.



대상 : 초등학교 이상

준비물 : 찰흙, 신문지, 굵은 붓, 스프레이, 화선지

계절 및 장소 : 사계절 가능, 나무가 많이 있는 곳.

## 작업순서

1. 같은 나무 찾기 놀이를 하면서 무늬가 다름을 안다.
2. 마음에 드는 나무의 무늬를 찾는다.
3. 찰흙의 반 크기를 납작하게 만든다.
4. 선택한 나무에 대고 손바닥으로 쳐서 누른다(찰흙이 너무 얇지 않게 누른다).
5. 나무에 붙어 펼쳐진 찰흙 끝을 조심해서 떼어낸다.
6. 떠낸 찰흙무늬에 스프레이로 물을 흐르지 않게 적당히 뿌린다.
7. 굵은 붓으로 올라온 면을 살살 문질러 흙물이 나오게 한다.
8. 흙물이 나온 찰흙에 화선지를 덮어 조심조심 문질러 무늬를 찍는다.
9. 여러 번 찰흙으로 판화작업을 해서 화선지 가득 무늬를 찍어낸다.

## 이렇게 해 보세요

1)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무엇으로 구분할까?

풀과 꽃은 잎과 꽃 모양으로 구분하고, 사람은 얼굴로 구분하고, 나무는 나뭇잎 모양으로 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럼 나뭇잎이 떨어지고 없는 계절의 나무는 어떻게 구별을 하지? 나무에도 얼굴이 있을까? 아이들은 두리번거리면서 숲에 있는 나무를 비교하기 시작한다.

“나무의 무늬가 달라요.”

아이들은 숲 속의 나무에서 얼굴을 찾는다.

“세로줄도 있고, 반질반질 하면서 하얀 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흑 같은 것도 있어요.”



“Y자 같은 글씨도 있고, 동그란 무늬도 있어요.”

### 2) 같은 무늬를 가진 나무 찾기 게임

“내가 가리키는 나무와 같은 무늬를 가진 나무를 찾는 거야.”

한 나무 앞에 서서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하게 하고, 출발 신호와 함께 같은 나무를 찾아 앞에 선다. 여러 종류의 나무를 예로 제시하며 놀이를 진행한다.

같은 나무 찾기 놀이를 하다보면 나무의 무늬가 다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복잡한 무늬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문양을 찾고, 간단하게 요약하는 능력이 생긴다. 나무 찾기를 하며 나무의 무늬를 더 유심히 보게 되고 나무의 특징도 더 잘 알게 된다.

### 3) 판화기법의 나무 무늬찍기

찰흙으로 판화기법을 이용한 무늬찍기를 해보자. 찰흙을 넓게 펴서 선택한 나무에 대고 손바닥으로 쳐 누른다. 나무에 붙어 펼쳐진 찰흙 끝을 조심해서 떼어낸다. 나무 특유의 무늬가 찰흙에 새겨지는 볼 수 있다. 떼낸 찰흙무늬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물을 뿌리고, 굵은 붓으로 볼록 올라온 면을 문질러 흙물이 되게 한다. 화선지를 그 위에 덮고 손바닥으로 조심조심 문질러 무늬를 떼낸다.

찰흙으로 떼낸 흙의 무늬가 없어지면 나무에 다시 찍어 몇 번이고 판화를 할 수 있다. 화선지 가득 찍어낸 무늬는 특이한 문양을 만들어 내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 주의점

1. 꽃이 많이 피어 있다고 해서 꽃을 필요 이상으로 꺾게 해서 안 된다. 되도록 시들어 떨어진 꽃잎을 이용하고 관상용으로 심어놓은 꽃보다는 들에 핀 풀과 잎사귀를 이용하게 한다.
2. 본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접착 시트지를 쓰게 하면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처럼 편리하다. 시트지는 색상이 다양하다. 하지만 투명하지 않으면 그린 그림이 보이지 않아 접착 면에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한 시트지를 사용해야 한다.

## 하나 더! - 나무의 얼굴 (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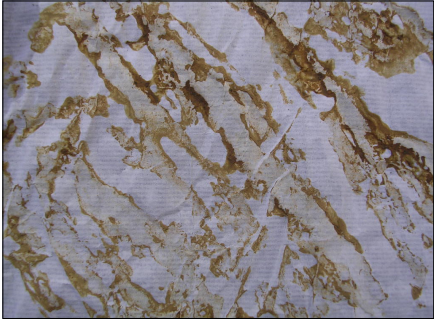
대상 - 유치부

준비물 - 찰흙, 신문지

수업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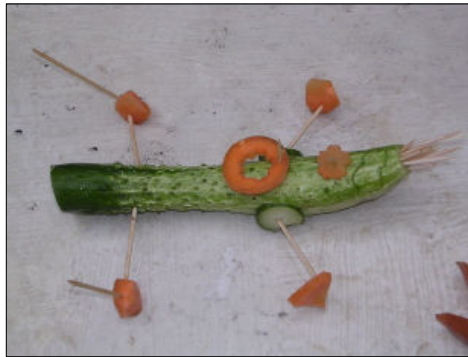
1. 같은 무늬를 가진 나무 찾기 놀이를 한다.
2. 마음에 드는 나무의 무늬를 찾아 적당한 크기의 찰흙으로 찍어 낸다
3. 신문지에 찍어낸 무늬를 연결하면서 나무를 만든다.(나무는 선생님이 도와준다.)
4. 남은 찰흙으로 잎사귀도 만들고, 곤충도 만들어 표현한다.

재료의 특성 - 찰흙은 형태의 변화가 자유로워 모양 찍기를 하기에 좋다.



# 방아깨비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비 오는 날에는 곤충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걱정이다. 곤충들도 어딘가에서 비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관찰 통을 만들면서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어 본다.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워하는 것이 곤충이다. 풀 속에 사는 여러 종류의 곤충을 관찰하고, 자연에서 곤충의 역할을 알게 해보자. 풀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찾고 쫓아보고, 잡아본다. 곤충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알아보자.



대상 : 초등학교 이상

준비물 : 오이, 당근, 과도, 이쑤시개, 무늬 찍는 도구, 매미채, 1리터 짜리 투명한 페트병, 칼, 스테이플러

계절 및 장소 : 방아깨비를 볼 수 있는 계절인 여름과 가을, 실내와 실외 모두 가능.

## 작업순서

1. 관찰 통을 만든다.
2. 곤충을 잡아 관찰 통에 넣고 관찰을 한다.
3. 관찰한 곤충을 특징을 살려 그린다.
4. 야채와 이쑤시개를 써서 곤충 모형을 만든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관찰 통 만들기

커다란 플라스틱 페트병을 고른다. 되도록이면 겉면에 울퉁불퉁한 무늬가 없는 깨끗한 것으로 고른다. 뚜껑이 있는 위 1/3 정도를 칼로 잘라낸다. 뚜껑을 열고, 자른 뚜껑 부분을 거꾸로 뒤집어 깔때기 모양으로 밑 통속에 넣으면 된다. 스테이플러로 양쪽을 집어 주면 움직이지 않아서 좋다.

### 2) 풀 속 곤충 찾기

곤충들은 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 숨어 있는 곤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풀을 손이나 발로 건드리면 숨어 있던 곤충들이 들켰다며 폴짝폴짝 튀기 시작한다. 튀어 올랐던 곤충이 내려앉자마자 곤충망으로 덮친다. 곤충망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손을 오므려 공간을 만들어 손으로 잡는 방법도 있다.



### 3) 상상하기

곤충들은 우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아이들에게 자신이 곤충이 되어 사람들에게 잡혔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무서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사람에게 밟히지 않게 조심해야지.”

곤충은 자기보다 몇 천 배나 큰 거인인 인간에게 잡히면 긴장과 무서움 때문에 배설을 한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똥 썩다고 깔깔대지만, 곤충의 입장에서 정말 무서운 경험일 것이다. 사람도 긴장하거나 놀라면 소변을 누게 되는데 사람과도 똑같다.

### 4) 곤충들은 어떻게 구별을 할까?

풀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곤충들이 산다. 우리 산에서 잡히는 곤충의 80%는 섬서구 메뚜기이다. 머리의 형태가 삼각형이고 양옆에 눈이 돌출되어 있다. 가끔 커다란 것이 작은 것을 엮고 다니는데 새끼가 아니고, 암컷이 수컷을 엮고 다니는 모습이다. 머리 윗부분에 흰색 X무늬가 그려져 있고, 몸의 색이 얼룩덜룩한 것이 ‘팔중이’이다. 방아깨비는 다른 곤충에 비해서 몸집도 크지만 몸에 비해 뒷다리가 유난히 길어 뒷다리를 잡고 “방아~ 방아~”라고 노래를 불러주면 방아를 찡뚱 몸을 아래위로 흔든다.

### 5) 곤충 관찰하고 그리기

돋보기나 루페로 곤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마디씩 한다.

“다리에 가시가 많고, 끝이 꼬부라져 있어요.”

“눈 속에 눈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배에 주름이 있고, 로봇 같아요.”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곤충을 관찰하면서 곤충의 특징을 살려 그리게 한다.

### 6) 야채로 곤충 만들기

오이나 당근의 반으로 몸통을 만들고, 나머지를 잘라 다리와 더듬이를 만드는 데 쓴다. 이쑤시개로 곤충의 다리를 만들거나 장식하는 데 쓸 수 있다.

### 7) 곤충 놓아주기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곤충을 꼭 놓아주도록 한다. 곤충을 집에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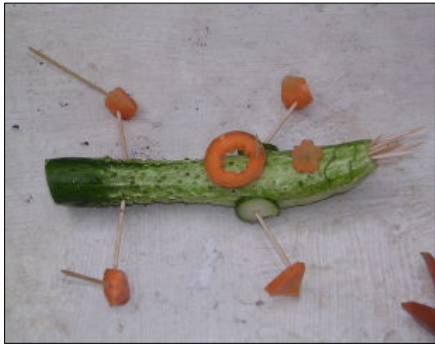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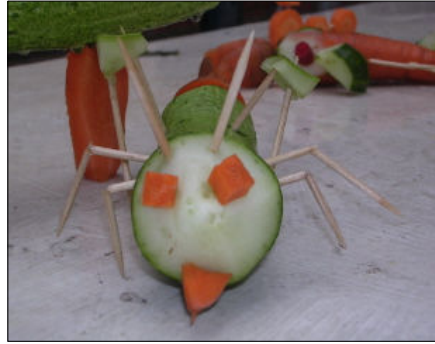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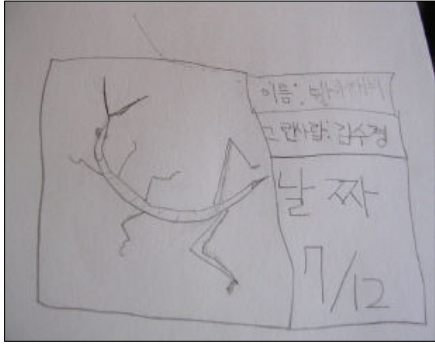
“너희들의 친구가 놀러왔다 돌아가면서 내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가져가면 어떤 기분일까? 우리들이 자연에 와서 싫다는 곤충을 잡고 가워서 관찰하고 집으로 가져가기까지 하면 자연의 마음은 어떨까? 자유롭게 풀 속을 뛰어 다니다 좁은 통에 갇혀 답답하게 있다 집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곤충을 풀이나 나뭇잎 위에 놓아주며 “잘 가라”고 인사한다.

## 하나 더! - 꽃지짐(화전)을 닮은 그림

집에 꽃 모양을 찍는 도구가 있으면 그것으로 꽃 모양을 찍는다. 이것을 이쑤시개에 꽂아 놓고, 동그란 화분 모양을 만들어 꽃을 꽂는다.

**재료의 특성** - 야채는 동그랗게 혹은 기다랗게 여러 모양으로 자를 수 있고,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하면서 모양을 창조할 수 있다. 특히 오이는 결이 물러 저학년이 쓰기에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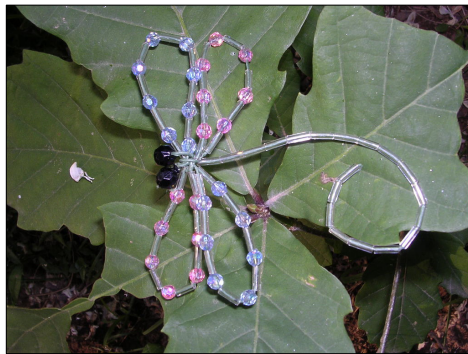


# 잠자리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유유히 날아다니는 잠자리. 잠자리채가 허공을 왔다 갔다 한다. 잠자리채를 가져온 남자아이들은 잠자리 꿈지만 따라다니고, 여자애들은 미리 포기하고 풀숲에 앉는다.

풀을 살짝 건드려본다. 아직 어려보이지만 모양은 성충과 똑같은 조그마한 곤충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팔중이, 방아깨비. 사마귀 등. 사마귀가 오줌을 싸면 팔에 사마귀가 생긴다며 아이들은 만지기를 망설인다. 그래서 그런지 사마귀는 앞발을 들고 의기양양한 포즈를 하고 있다.

잠자리와 다른 곤충들을 만난 아이들은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난 듯 즐겁다. 오늘 작업의 주인공인 잠자리를 가까이서 보고 특별한 재료인 구슬로 만들어 보기로 한다. 멋진 구슬잠자리 한 마리 만들어 볼까?



대상 : 초등학생 3학년 이상

준비물 :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 구슬, 가는 꽃 철사, 잠자리채, 곤충 채집함, 종합장, 연필, 루페

계절 및 장소 : 여름, 가을, 야외나 실내 모두 가능.

## 작업순서

1. 곤충을 관찰하고 그린다.
2. 철사 한쪽에 큰 구슬을 꿰어 눈을 만든다.
3. 눈에 구슬을 꿰어 한쪽 날개를 만든다.
4. 계속 구슬을 꿰어 반대쪽 날개를 만들어 완성한다.
5. 남은 철사에 구슬을 꿰어 꼬지를 만든다.
6. 날개와 꼬지에 표정을 담는다.

## 이렇게 해 보세요

1) 곤충을 상상해서 그리기와 관찰하고 그리기

잠자리를 잡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잠자리(또는 다른 곤충)를 먼저 그린다. 아이들 모두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잠자리를 잡으러 간다.

“야! 잠자리 잡았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아이들이 몰린다. 채에서 조심조심 날개가 상할까 긴장하며 꺼내 손가락 사이에 날개를 가지런히 모아 끼운다. 커다란 눈이 더 커지는 모양이다.

잡은 곤충은 다시 놓아줄 것이니까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날개가 있는 곤충들은 날개를 잡을 때 조심해야 한다. 날개를 모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관찰한다. 방아깨비는 뒷다리가 길어 다리를 잡게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다. 뒷다리를 모아 잡고 있으면 방아를 쿵닥쿵닥 쪼는다.

루페로 본 잠자리는 어떤 모습일까?

“눈 속에 눈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날개 땅 무늬가 너무 예뻐요.”  
“다리에 가시 같은 털이 있어요.”  
“주름이 많아요.”

잡힌 잠자리는 무서워 그만 똥을 싸고 만다.

잠자리를 잘 관찰한 후에 그림을 그린다. 처음에 그린 그림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밋밋한 선으로 날개의 외곽선만 그렸던 아이가 관찰 후의 그림에서는 다리에는 털을, 날개에는 무늬를, 꿈지에는 주름을 그려 넣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떨고 있는 잠자리를 놓아주며 잘 가라고 인사해준다.

## 2) 구슬 잠자리 만들기

긴 철사 한쪽 끝에 큰 구슬을 꿰어 잠자리의 눈을 만든다. 눈의 뒤에 작거나 다른 색의 구슬을 꿰어 한 쪽 날개를 완성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철사에 눈과 날개를 만들어 완성한다. 남은 철사에 구슬을 꿰어 꿈지를 만든 다음에 날개와 꿈지에 표정을 담아 본다.

그림을 보면서 구슬을 꿰어 잠자리를 만들었다. 꿈지가 꼬부라진 잠자리 표정이 있는 잠자리가 만들어졌다. 곤충을 관찰하며 나와 다른 생명체를 느낀다.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곤충을 알려면 움직이는 곤충을 직접 잡아보고,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잠자리채를 가져오게 해서 잠자리도 잡고, 나무에 붙어 울고 있는 매미도 잡고, 풀 속에 사는 곤충도 잡아 본다. 투명하고 커다란 통에 풀과 곤충을 넣어 관찰하고, 곤충의 행동을 따라 해보면서 곤충이 되어 돌아보자.

**주의점** - 꼭 잠자리만으로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어떤 곤충이든 상관없다. 다만 곤충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자연을 찾아간 손님이라는 것과 곤충도 생명이 있는 우리와 같은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걸 강조해준다.

## 하나 더! - 구슬로 잠자리 그리기

구슬을 꿰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엔 접착 시트지를 준비하여 구슬을 붙이기만 하여도 곤충의 형태가 보여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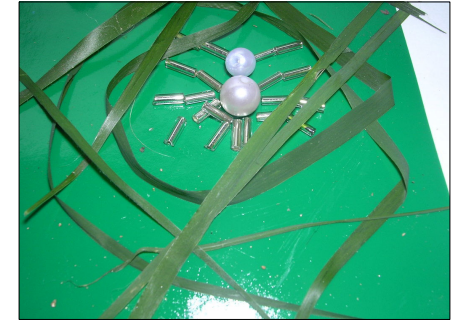
대상 -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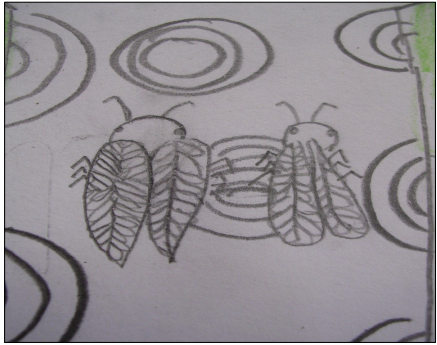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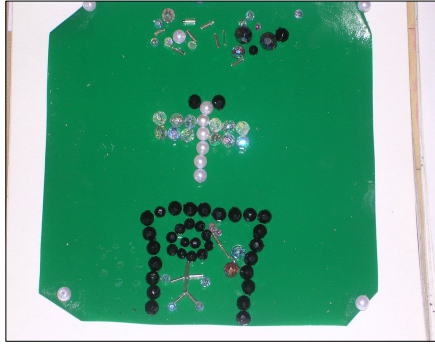
준비물 -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 구슬, 접착 시트지(시트지는 양면테이프로 고정을 시킨다)

작업순서 - 1. 곤충을 관찰하고 종합장에 그린다.

2. 시트지에 구슬을 붙여 곤충그림을 그린다.

**재료의 특성** - 가는 철사에 엮은 구슬은 마음대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 장승

여행을 하다보면 산과 마을을 지키는 장승을 많이 만나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그 표정들이 서로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섭고 위엄 있는 표정의 장승이 있는가 하면 재미있고 익살스런 표정의 장승 등 다양한 모습의 장승들이 있는데, 모두 사람을 닮아 있다. 장승은 그 마을을 지켜주고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서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거나 손대지 않고 신성시한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손쉽게 그리고 나무를 자르지 않고 장승을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숲 속에 서 있는 나무를 보면 자연스럽게 서 있는 장승의 자태다. 그 나무기둥에 아이들이 말하는 무서운 얼굴을 표현해 주기만 하면 곧바로 장승이 되겠다 싶다.



대상 : 유치원생 이상

준비물 : 찰흙 두덩이, 스케치북, 연필

계절 및 장소 : 봄, 여름, 가을. 나무가 있는 실외.

## 작업순서

1. 얼굴 표정을 만들며 논다.
2. 친구와 마주하며 만들었던 표정을 스케치북에 그린다.
3. 장승을 만들 나무를 찾는다.
4. 찾은 나무에 찰흙으로 표정을 만들어 붙인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장승의 표정 흉내 내기와 표정 그리기

자기 얼굴로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들고 놀며 장승의 표정을 생각한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웃는 표정, 우는 표정, 화난 표정을 지어보고, 손가락으로 눈을 올렸다 내렸다, 코를 올렸다 내렸다,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들어 보자. 마주보며 누가 가장 웃긴 얼굴을 만드는지, 누가 가장 무서운 얼굴을 만드는지 시합하며 논다.

친구와 마주보며 만들어 본 표정을 그림으로 그린다.

“장승의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

“눈도 크고, 입도 크고, 무섭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만든 무서운 표정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게 하며 눈을 흘킨다.

### 2) 장승 만들기

장승 만들기는 의외로 쉽다. 주변에서 장승을 만들고 싶은 나무를 찾는다. 찾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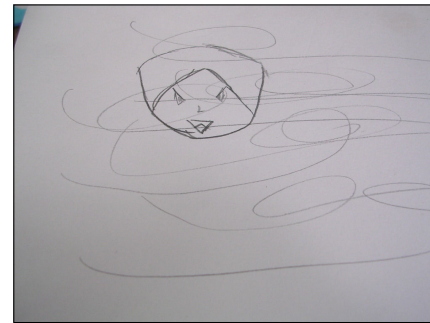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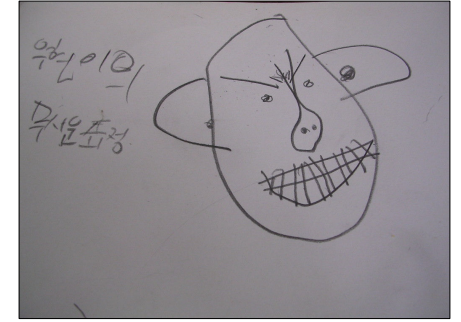
나무에 찰흙으로 장승의 얼굴 표정을 만들어 붙인다. 나뭇가지나 솔방울, 나뭇잎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자유롭게 치장을 하도록 한다. 장승들은 화가 난 듯하지만 모두 웃고 있다. 동네 산을 지켜주는 장승이 여럿이니 무서울 것이 없다.

### 주의점

1. 장승을 만들 때 꼭 한 가지 표정만 고집하지 않는 게 좋다.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은 표정을 만들게 하면 좀더 자연스러운 장승과 만날 수 있다.
2. 찰흙을 꼭꼭 눌러줘야 찰흙이 떨어지지 않는다.

### 하나 더!

나무에 사는 애벌레나 곤충을 만들어 붙이기를 해도 재미있다.



## 재미난 얼굴

우리 어릴 적에 동네에 빵 아저씨가 오시면 온 동네가 하루 종일 장터마냥 시끌벅적했었다. 집에서 말린 누룽지부터 명절 때 먹던 가래떡, 말린 옥수수들이 모두 빵 과자로 변신한다. “빵이요!” 외치는 아저씨의 목소리에 조마조마한 가슴을 꼬옥 감싸듯 귀를 막고 그 순간을 즐기던 모습들이 선하다. 어찌다 튀어나온 과자들에 달려들어 주워 먹는 아이들은 황재라도 한 것 같다.

지금도 가끔 아파트 입구나 마을 어귀에 빵 아저씨가 오셔서 과자를 만드시지만 그렇게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 빵 과자가 슈퍼에 있는 과자만큼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런 빵 과자가 맛있어지는 때가 있다. 여러 종류의 빵 과자를 모아 놓고 친구들과 함께 먹는다면 빵 과자 맛이야말로 그 어떤 과자 못지않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때 과자를 먹는 친구의 모습도 그냥 지나치지 말자. 단순한 빵 과자 속에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이 숨어 있다.



**대상 :** 유치부, 초등학생

**준비물 :** 스케치북, 연필, 지름 20cm되는 동그란 빵 과자, 여러 모양 (옥수수, 보리쌀, 쌀, 원통)의 빵 과자, 물이 흡수된 스펀지

**계절 및 장소 :** 사계절, 겨울에만 실내

### 작업순서

1. 얼굴을 보면서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2. 여러 가지 빵 과자로 얼굴을 만든다.
3. 만든 얼굴을 모아놓는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친구 얼굴 보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본적이 있을까? 친구의 얼굴 자세히 들여다보자. 마주보는 친구 얼굴을 보면서 눈, 코, 입의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친구의 얼굴에서 그 친구만이 가진 개성을 찾아내고 칭찬해 주기를 한다.

“친한 친구의 얼굴을 보자. 눈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지?”

“옆으로 찢어졌어요.” “동그래요.” “눈 속에 내 얼굴이 보여요.”

“그럼, 코는 어떤 모양이니?”

“콧구멍이 삼각형으로 나비 같아요.” 하며 깔깔댄다.

“구멍이 보이질 않아요.” “얘는 구멍이 동그략게 보이는데요.”

코는 코의 모양보다 콧구멍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다.

“그럼, 입은 뭐라고 할까?”

“산이 두 개 있어요.” “주름이 세로로 있어요.”

## 2) 예쁜 곳 찾기 놀이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예쁜 곳 찾아 칭찬해주기 게임을 해 보자.

“이 친구는 나비 같은 코가 제일 예뻐요.”

“눈이 토끼 눈 같이 동그라서 예뻐요.”

## 3) 웃기는 표정 만들기

이번에는 웃긴 표정 만들기를 한다. 눈도 가운데로 몰리게 하고, 눈을 양옆으로 찢어 아래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며 놀고, 코도 들었다 눌렀다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4) 친구 얼굴 있는 그대로 그리기

얼굴은 동그랗기만 한 걸까? 보통 아이들은 얼굴을 그릴 때 동그랗게 그린다. 친구의 얼굴선을 따라 눈으로 보며 손으로 따라 그린다.

“진짜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니?”

“아니요. 동그랗고 길쭉해요.”

“동그랗다가 턱 있는데서 뽀족해요.”

“울퉁불퉁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또 웃는 표정, 우는 표정, 화난 표정 등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들어 본다.

“웃는 표정을 만들면 눈, 코, 입이 어떻게 변하니?”

“눈은 반달 모양이 되고, 코 옆에 주름이 생기고, 입은 옆으로 길어져요.”

“입이 벌어지면서 이가 보여요.”

“선생님 눈 옆에 주름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친구의 얼굴 모습을 잘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그려보도록 한다.

## 5) 빵 과자로 얼굴 만들기

둥글고 커다란 빵 과자를 보여주며, 동그란 얼굴보다는 개성 있는 얼굴을 만들게 한다.

“우리 뜯어 먹으면서 얼굴모양을 만들어 주자.”

빵 과자는 물이 닿으면 죽같이 되면서 끈끈하다. 그 끈끈함을 이용해 서로를 대고 살짝 눌러주면 잘 붙는다. 물을 묻힌 스펀지에 잠시 대고 있다가 사용하면 적당히 수분이 있어서 연결이 잘 된다.

“눈은 어떤 빵 과자로 붙여줄까, 코는? 입은?”

두 눈을 반짝이며 마음으로 얼굴을 만들고 있는 게 보인다.

하나 더! - 꽃지짐(화전)을 닮은 그림

동물 만들기를 해도 재미있다.

**주의점** - 빵 과자에 물을 너무 많이 흡수시키면 빵 과자가 녹아버려 구멍이 뚫린다. 빵 과자도 잘 부러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재료의 특성** - 작은 빵 과자는 손으로 모양을 만들기는 어렵고, 입으로 뜯어 먹으면서 해야 모양 만들기가 쉽다. 먹으면서 할 수 있어 더 즐거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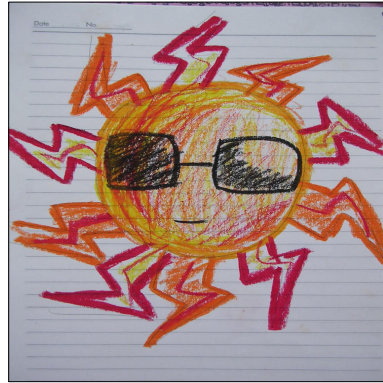


# 뜨거운 태양의 열기

뜨거운 한여름 작열하는 태양이 더없이 싫어진다. 하지만 해를 가지고 놀이로 연결해 놀아 볼 수만 있다면? 그냥 여름과 뜨거움의 상징인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햇살이 뜨거운 가운데 해를 등지고 선다. 조금만 서 있어도 “등이 뜨거워요.”를 연발한다. 그렇게 5분 정도 서 있어도 아이들은 참을성을 잃고 시끄럽다. 그럴 때 나무 그늘로 뛰어간다. 그들의 시원함을 두 배로 느낀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곡식이 여물 수 있음을 얘기해 준다. 햇벌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하지만 놀이로 이어지면 흥미로워한다. 해를 등지고 서서 그림자놀이를 한다.

뜨거운 햇벌을 느껴봄으로서 그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뜨거운 햇벌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알게 한다. 색칠만 하던 크레파스의 다른 사용방법을 알게 해보자.



대상 : 초등학교 3학년생 이상

준비물 : 스케치북, 크레파스, 휴대용가스렌즈, 솜방망이, 유리병(1회용 쟀 병)10개 정도, 높이가 낮은 프라이팬, 크레파스, 못쓰는 CD, 물 1병, 손거울

계절 및 장소 : 햇벌이 뜨거운 여름이나 가을, 실외  
작업순서

1. 해와 노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논다.
2. 놀이 중간 해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게 아이들 가만히 서있게 한다.
3. 해의 뜨거움을 느끼고 스케치북에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색으로 표현하게 한다.
4. 못쓰는 CD에 녹은 크레파스로 해를 표현한다.
5. 표현된 작품을 전시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얘기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1) 뜨거움을 효과적으로 느끼는 방법

어떤 일에 정신을 쏟고 있으면 그 주변의 것은 의식하지 못한다.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여름 한 낮의 뜨거움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놀 때는 의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햇벌 속에서 서 있게 하면 5분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 2) 해와 이렇게 놀아요

손거울을 들고 커다란 원을 그리며 빙 둘러선다. 손거울에 해를 모아 반대편 아이에게 보내준다. 또 그들의 담을 보고 일렬로 서서 손거울에 해를 모아 그들 속 담벼락에 햇벌을 보내준다. 해를 등지고 서서는 그림자놀이를 한다. 평지에 그들과 햇벌이 만나는 곳 중간에 돛자리를 펴고 해의 뜨거움을 느끼다 떼구르르



쿨러 그늘 속으로 들어가 시원함도 느껴본다.

### 3) 태양 만들기

가스렌지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크레파스가 담긴 유리병을 넣어 크레파스를 녹인다. 물론 프라이팬에 물을 부어 중탕을 시켜야 한다. 녹은 크레파스는 물감도 아니고 크레파스도 아닌 색다른 미술재료가 될 것이다. 못쓰는 CD에 자신이 느낀 태양의 열기를 표현하면 된다.

### 4) 태양에 이름을 붙여 볼까?

이글이글 타는 태양의 열기다. 우리가 표현한 태양에 이름을 붙여볼까?

케익 태양, 뜨거운 여름 태양, 덥지덥지 태양, 시원한 색을 쓴 호수 태양, 일곱 가지 무지개 태양..... 아이들이 표현한 태양은 여러 색이 혼합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태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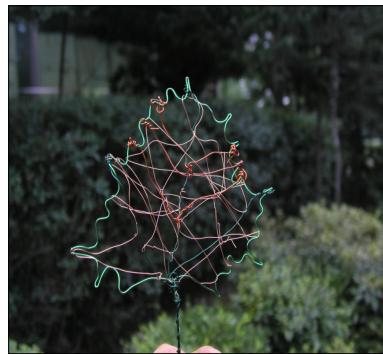
### 주의점

1. 손거울로 해를 모아 상대방에 보낼 때는 상대방 눈에 보내지 않게 조심시킨다.
2. 불을 사용해 크레파스를 녹여 사용하는 방법이라 작업을 하다 데이지 않게 조심시킨다.
3. 뜨거운 곳에 오래있으면 일사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그늘과 해를 적당히 오가며 수업한다.

재료의 특성 - 크레파스를 녹여서 쓰면 칠한 곳에 몇 번이고 덧칠을 할 수 있고 거친 듯한 표면효과로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다.

## 동선으로 만든 잎

<나는 몇 개의 잎을 알고 있을까?> 놀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한다. 이 놀이는 무심코 지나쳤던 나뭇잎과 풀잎을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이 긴장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놀이를 한 다음부터는 잎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서 흥미를 갖고 잎사귀를 자세히 보게 된다. 무엇인가를 보지 않고 그린다는 것은 대상을 진정으로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인원 : 6명 이하

준비물 : 도화지, 연필, 지우개, 여러 가지 색과 굵기의 두께 0.8mm 이하 동선(銅線: 구리선), 롱노즈플라이어(일명 라디오 펜치로 끝이 뾰족하고 긴 펜치)

### 작업순서

1. <나는 몇 개의 잎을 알고 있을까?> 놀이를 한다.
2. 1의 놀이 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잎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잎을 보러 다닌다. 이때 잎사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다.
3. 아이들이 나뭇잎, 풀잎을 충분히 본 후에 마음에 드는 잎을 5개 따오도록 한다.
4. 잎의 가장자리나 잎맥이 재미있는 잎을 고른다.
6. 동선을 다루는 도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다.
7. 동선을 이용하여 잎을 만든다.
8. 작업 후의 느낌을 나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1) 나는 몇 개의 잎을 알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보이게 하는 것은 눈썹 모양, 머리모양, 목소리, 옷 등이라고 아이들은 말한다.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구별될까? 그래, 바로 잎사귀이다.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는 나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잎사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리는 놀이를 하겠어요. 잎사귀를 그리고 이름을 쓰는데 모르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잎을 본 장소는 써야 합니다.”



아이들의 순서를 정한 다음에 도화지 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잎을 하나씩 차례대로 그려나가는 놀이이다. 나뭇잎으로 한정해도 되고 나뭇잎과 풀잎을 모두 포함해도 된다.

잎을 그린 후 잎의 명칭을 아는 아이는 쓰고 모르는 아이는 그 잎을 본 장소를 쓰도록 한다. 장소를 쓰면 그 장소를 지날 때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렸던 잎에 관심을 갖게 된다.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안내자는(차례가 돌아 왔을 때 세 번을 그리지 못하면 탈락이라든가 하는)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서 놀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도록 해야 한다.

잎사귀를 그리는 놀이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시험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긴장하기도 한다. 약간의 긴장이 아이들의 흥미를 돋운다. 이러한 놀이는 긴장과 즐거움이 함께한다.

사선을 하나 그리고 소나무 잎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많이 본건데 이름은 몰라’ 하면서 그림만 그리는 아이도 있다. 어떤 아이는 잎맥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잎을 다른 아이가 그릴 때는 아쉬워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을 새롭게 익혀 나간다. 알면서도 잘 그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지 못하는 친구가 답답했는지 ‘학교 앞에 있는 것도 있잖아.’라고 알려준다. 고마워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아이들은 잎을 그리다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 몸을 비비 틀면서 밖에 나가서 보고 싶어 한다.

아이들은 의외로 잎을 많이 알고 있다. 물론 아이들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은행잎, 단풍잎도 정확하게 그리지 못한다. 아이들이 그리는 잎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해서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의 내면에는 자기 주변의 잎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게 되고 알고 있었던 잎에 대해서도 더욱 정확하게 기억하게 된다.

## 2) 잎사귀 모으기

잎사귀를 모아오자는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궁금해서 부리나케 나간다. 아파트 앞 화단을 눈으로 훑으며 가는 아이들. 잎 하나하나가 다른 때와는 달리 보이거나 보다. 나무 위를 열심히 보는 아이. 풀들을 열심히 보는 아이. 어느

새 자신의 얼굴크기만 한 잎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린 것이라며 좋아하는 아이. 누군가 신기하고 특이한 잎사귀를 가지고 오면 아이들은 ‘우와, 예쁘네’ 한다. 아이들은 친구가 그린 것을 발견하면 그 친구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한다.

충분히 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나는 몇 개의 잎을 알고 있을까?>에서 그렸던 잎이나 처음 보는 마음에 드는 잎을 다섯 개 정도 가져오도록 한다.

## 3) 동선으로 잎 만들기

아이들이 잎을 수집해 오면 잎사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잎을 하나 골라서 동선으로 잎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만들기 전에 동선을 자르거나 구부리는 도구인 롱노즈플라이어(일명 라디오 펜치)의 사용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동선으로 잎맥과 잎의 가장자리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잎을 아주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 잎의 가장자리는 굵은 동선으로 잎맥은 가는 동선을 이용해서 만든다. 동선으로 나뭇잎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나면 잎의 가장자리(거치(鋸齒)) 선이 아름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잎사귀마다 잎맥과 잎의 가장자리가 다르며 특색이 있음을 알게 된다.

## 4) 느낌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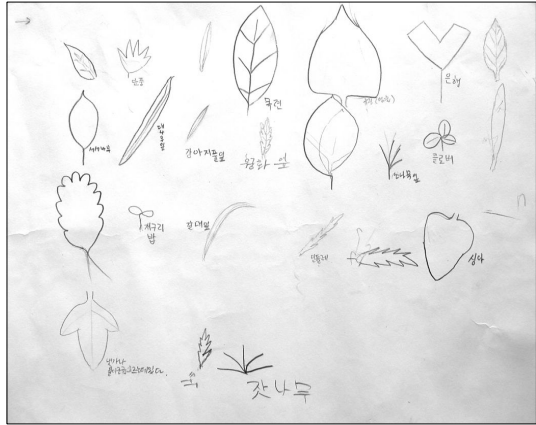
“잎맥이 너무 많아서 만드는 데 힘들었어요.”

“잎맥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자리가 다 달라서 신기했어요.”

## 주의점

1. <나는 몇개의 잎을 알고 있을까?> 놀이는 한 모둠이 6명 이상이 되면 지루할 수 있다. 아이들이 많으면 모둠을 나누어 준다. 모둠별로 한사람씩 순서대로 나와서 커다란 전지에 그려도 재미있는 놀이가 된다.
2. 잎사귀 하나를 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 두어야 놀이의 흐름이 매끄럽다.



나는 잎을 몇 개나 알고 있을까?

